

세상 역사 뿐 아니라 인간 개인사에도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학의 발전과 경제적 풍요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갔지만 단순히 장수함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는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8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0월 1일 (토) 제 160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내 삶에 '은퇴' 는 없다!

뉴스위크, 은퇴연령 넘어도 계속 일하는 비율 갈수록 증가 보도

캘리포니아 주 로망다대학 아동병원의 외과과장인 레너드 베일리 박사는 얼마 전 74세 생일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6시 30분 출근해 주 60시간씩 일한다. 선구적인 심장 수술 전문의인 그는 '유아 대 유아' 심장 이식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뒤 갖난 야기를 위해 수백 건의 이식 수술을 집도했다. 베일리 박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식 수술이 있는 주는 80-90시간 일하기도 하지만 하루 2건 이상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것처럼 강도 높고 쉴 틈 없는 업무에도 은퇴할 생각은 없다. "일을 그만둘 이유가 없다. 늘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문제를 다루면 뇌세포가 활성화돼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진다." 로스앤젤레스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동쪽의 고원사막지대에 위치한 로망다대학의 '장수 수도'로 잘 알려졌다. 이곳에서 베일리 박사가 그리 특이한 축에 들지도 않는다. 로망다대학의 주민 다수는 주변 도시 사람들보다 수명이 약 10년 더 길다. 70대 중 다수는 일반적으로 30-40대에 적합한 일을 한다. 이곳 상황이 예외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미국 전역에서 갈수록 흔해지는 현상이다(MORE SENIOR AMERICANS ARE WORKING PAST RETIREMENT, WILLINGLY).



인간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를 늦추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고용주들도 경력자를 찾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연령을 넘은 미국인 중 계속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2000년 12.8%에서 올해 18.8%로 크게 늘었다. 65-69세 미국인의 약 3분의 1, 70-74세의 5분의 1, 75세 이상의 8.4%가 여전히 유급으로 일한다.

이런 추세를 이끄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그중 일부는 금전적인 이유다. 2008년의 경기 대침체로 은퇴 저축이 대부분 고갈되고 고정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이 크게 줄면서 그들 대다수는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베일리 박사처럼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일손을 놓을 생각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도 많다.

LA 소재 밀켄 연구소의 폴 어빙 대표는 "고령화되는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는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골프장을 갖춘 해변 실버타운에 사는 것 같은 전통적인 은퇴를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은퇴라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미국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구 구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은퇴에 대

한 태도도 달라졌다. 20세기 전연수명 50세를 넘기는 미국인이 절반도 안 됐다. 그러나 21세기 중반이 되면 65세 이상인 미국인이 8,800만 명 이상이 된다(미국정부 추정치). 그러면서 앞으로 그들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사회 자원을 고갈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파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국가들은 경제난에 대비해야 한다. 활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젊은 근로자는 줄고 연금과

의료비가 치솟기 때문이다(일본이 대표적으로, 일본 인구의 약 40%는 2060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된다). 그러면서 부족한 자원을 대량 소모하는 탐욕스런 노년층의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고 본다. 요즘의 고령자 중 다수는 이전 세대보다 더 건강하고 학력과 생산성이 높으며,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3면으로 계속)

주류교단 쇠퇴, 복음주의 건재

CT, 최근 여론조사 결과 "크리스천 감소"에 대한 반론 사실 논증 게재(2)

주류교단들

〈지난 호 1면, "미국 기독교는 아직 건재하다!"에서 계속〉

최근 들어 주류교단에 속한 교회들 즉 연합감리교회(UMC), 미복음투터교회(ECLA), 성공회, 미국장로교회, 미침례교회, UCC, 그리고 예수 제자교회는 심각한 교인 감소 현상에 직면했다. 전체적으로 미국 교회는 건재하지만, 주류교단은 그렇지 않다. GSS에 따르면, 1972년에 28% 정도가 주류교단이었지만, 2014년에는 12.2%로 마이너스 성장의 상승 곡선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미국장로교회의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즉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동 교단 교인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교세가 감소됐다. 2002년에는 41,812명이나 빠져나갔고, 2012년에는 총102,791명이라는 엄청난 탈장로교회 현상을 경험했다.

가 복음주의자였고, 2014년에는 놀랍게도 22.7%로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미국인들 중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도 7.9%에서 12.5%로 증가했다.

복음주의 교회는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즉 복음주의의 성공은 미국인들이 점점 더 자신들을 복음주의의 교인이라 말하고, 점점 더 복음주의 교회들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 성장이란 견지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복음주의 교회는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바로 언젠가는 "하늘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라는 교회 성장 신화(?)의 불확실한 불안이 복음주의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잠식하고 있다. 노들담대학의 사회학 교수, 크리스천 스미스는 이러한 경향을 "복음주의자들은 통계에만 의존해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주류교단(UMC, ECLA, 미국장로교, 미침례교...) 50년 내 소멸 가능성도

복음주의: 1972년 17.1%, 2014년 22.7%, 정기적 교회출석 7.9%→12.5%

다른 주류교단도 마찬가지로 감소세에 들어섰다. 교인의 노령화, 출산을 통한 자연 성장의 실패, 신학적 선명도의 부족, 그리고 개척교회 부족 등이 주류교단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주류교단은 과다출혈로 긴급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그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떤 주류교단을 향후 5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교회들은 여전히 안정세에 있다. GSS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주일 예배 출석율이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정점을 보이다가, 감소했고 그리고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72년, 미국인 중 17.1%

복음주의 교회의 현실은 통계 이상이다. 미국인 중 1/3 이상이 자신을 복음주의자로 말한다. 게다가,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에 더 자주 간다. 2014년 GSS는 지난 2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복음주의자들 중 상당수의 교회 나가는 숫자가 지난 40년 동안 그 어느 기간보다 더 많았다고 보고한다.

다시 말해서, 복음주의자 중 55%가 거의 매 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다. 퓨리서치 통계 역시, 미국 크리스천들 중 과반수 이상이 복음주의자, 아니면 중생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다.

"복음주의적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단일 종교 전통을 가진다. 현재, ¼ 정도의 미국 성인들이 자신을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말한다.

(6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2면
말입국 중남미 청소년들 위해 기도해야!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4면
인/터/뷰 [교회 담임 이계근 목사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6 밀알의밤 with 박완규

10월 14일 (금) 7:30pm
ANC온누리교회 / www.anconnuri.com
10000 Foothill Bl., Lake View Terrace, CA 91342

10월 15일 (토) 7:00pm
주님의영광교회 / www.gjcj.org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10월 16일 (일) 7:00pm
은혜한인교회 /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특별출연
FOREVER 21



노유진
피아노 연주자, 시각장애
- 뉴잉글랜드 컨서버터리 졸업



유제이
K팝스타5

행사수익금 전액은 2017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958,400을 지원하였습니다.

에매처: 핫딜 hotdeal 중앙티켓센터 http://hotdeal.koreadaily.com 중앙티켓센터 213-784-4628 / 두란노서원 213-382-5400
Joy 기독교서점 213-380-8793 / 복음사 562-865-4949
알라딘서점(올림픽점 213-739-8107, 로데오갤러리점 213-380-8885, 풀러튼점 714-523-7060, 가든그로브점 714-530-8484)
도르가기독교백화점 714-636-7430 / 윌타리서점 310-325-9191 / ANC온누리교회 서점 818-834-7000 / 은혜서점 714-446-1006

Ticket Donation: \$15
티켓구입 및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www.MilalMission.com
657. 400. 9570

2017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수혜대상: 장학생, 근로복지생, 꿈나무장학생

자격: 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복지생: 00명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장애인 중 선별)
꿈나무장학생: 00명

장학금액: 장애인장학생 및 근로복지생: 1인당 \$3,600 (매월 \$300/1년간 지급)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 (일시불)

신청마감: 2016년 11월 30일(수) / 발표: 추후 개별통보

신청처: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Tel: 657-400-9570
smilal@milalmission.com

자세한 사항은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milalmission.com

밀입국 중남미 청소년들 위해 기도해야!

뉴스위크, 중남미청소년 7만명 강제추방... “고국에서 갱단 공격 대상된다” 보도

지난 1월의 어느 날 새벽 6시 30분, 윌딘 아코스타(19)는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각할까봐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간 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더럼에 있는 아코스타 가족의 붉은 벽돌집 밖에서 기다리던 이민관세사청(ICE) 요원 3명이 그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고 위장 순찰차에 태워 어딘가로 가버렸다. 주방 창문으로 이를 본 아버지는 깜짝 놀랐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이주 노동자로 미국에서 일하던 부모와 다시 만나기 위해 위험을 불사했던 온두라스 소년은 급작스럽게 비극을 맞았다. ICE 요원이 아코스타를 체포한 이유는 그가 더 이상 법적 미성년이 아니고 이민 심판관이 그의 강제 추방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뉴스위크는 19세에 불과한 아코스타와 같은 중남미 청소년들이 이민국에 의해 체포돼,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해 갱단에 가입하거나 이에 불복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고 보도한다 (JOIN A GANG OR DIE: DEPORTED CENTRAL AMERICAN TEENS FACE HARROWING CHOICE).

2년 전, 고국의 친척에게 작별을 고하고 미국으로 밀입국한 남미 청소년 7만명 중에 아코스타가 있었다. 성인을 수용하기 위한 구치소는 아이들로 넘쳐나는 임시 캠프로 변했다. 수감된 청소년 중에



지난 3월 24일,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서 아코스타를 비롯한 중남미 청소년들의 석방과 강제 추방을 금지하라고 관계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 관련 재판으로 넘긴다. 아동 이민자가 밀려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이민심판관협회 대니 맥스 의장은 말했다. “이들의 재판에 우선시하다 보니 전체 사법체계에 무리가 왔다. 오랫동안 계류된 다른 사건에 피해를 준다.”

지난해 ICE는 동행자가 없는 미성년자 1000여 명을 남미로 돌려보냈고, 이 중 400여 명은 온두라스로 송환됐다. 2014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청년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이유를 묻자 ICE 대변인은 최근의 밀입국자부터 최소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이들이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토안보부는 정부의 집행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강제추방된 젊은이에게 온두라스에서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다. “심각한 폭력을 피해 도망쳐 온 아이들”이라고 시카고 이민 심판관으로 일했던 엘리자 클라인은 말했다. 클라인은 남

복종 요구하는 갱단,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에게 더욱 가혹

는 다섯 살짜리도 있었다.

남미에서 라이벌 갱단의 싸움이 격해지며 부모 없이 미국으로 향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2014년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 이후 미국에 도착한 남미 불법 아동이민자의 58%는 폭력 때문에 고국을 떠났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향하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년간 미국에 도착한 아동이민자 중 아코스타처럼 이제 막 성년에 접어든 사람의 본국 추방을 집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민 당국의 명령으로 고국에 돌아간 많은 아이들은 폭력단 아니면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남미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경 또한 위협해졌다. 미성년 불법이민자의 대량 입국을 막고자 미국이 멕시코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아이들이 더 큰 위협에 처했다는 인권단체의 주장도 있다. 국경수비 강화로 멕시코 남부를 통하는 위험한 경로로 내몰린 아이들은 마약 범죄단에 납치 또는 인신매매되거

나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된다.

몸에 지닌 폰돈 때문에 살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멕시코 경찰에 잡혀도 대우는 별반 다를 게 없다. 멕시코에 있는 비영리 기구 예수회아주노동지원단체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찰과 관련된 강도, 폭력, 자의적 구속이 2014년 이후 86% 증가했다.

이런 위험이 있지만 “남미를 떠나려는 사람은 줄지 않았다”고 워싱턴 중남미 사무소 멕시코 및 이주노동자 선임사무관 모린 메이어는 말했다. “이곳까지 오려는 사람들은 멕시코 사법기구의 눈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미국에 도착한 불법 아동 이주자의 수는 4만 명을 넘었다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발표했다.

CBP는 밀입국 알선단체에서 안전하게 미국에 데려다 주고 합법적 영주권을 주겠다고 아이들을 속인다고 주장했다. 제이미 루이즈 CBP 대변

인은 미국에 오는 길이 위험하다고 미디어를 통해 경고한 글로벌 캠페인이 아니었다면 위험을 감행하는 아이들의 수가 더 늘어났을 거라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에이전시에서는 라디오와 TV, 심지어는 음반을 통해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오는 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캠페인을 내보냈다. “정보를 알려주는 것뿐”이라고 루이즈 대변인은 말했다. “마지막 선택은 부모가 해야 한다.” 간신히 미국에 도착해 국경을 넘는다는 하더라도 본국 송환의 위험은 언제나 있다.

미국의 사법체제는 벌써 이민

미로 강제 추방되는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일을 그만뒀다. “집 안에만 있어도 위험할 때가 있다.”

이들을 위협하는 건 라이벌 관계에 있는 ‘마라18’과 ‘마라 살바투차(Mara)’ 갱단이다. 두 갱단 모두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제추방된 폭력단원이 만들었다. 지금은 힘과 영향력이 남미 곳곳에 미친다. 온두라스 국경을 넘어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까지 폭력범죄가 확대되는 건 마약거래 때문이라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말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모여야 산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요즘 ‘가나안’ 성도가 자꾸만 늘고 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이나 하면 기독교라고 하지만 막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뒤집어서 하는 말이다. 얼마 전 한국의 어떤 종교기관에서 행한 조사에 의하면 자신을 기도교인이라고 밝힌 사람 가운데 10% 정도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천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니 백만 명 가량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실정인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가나안 성도들이 신앙 연륜이나 뿌리가 시원치 않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만두었거나, 교회 내에서 조금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떠나고 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 중에 다수는 교회를 적어도 10년 이상 출석했고, 각종 봉사직분을 두루 거쳤고, 한때 교회의 핵심멤버로서 깊이 참여했던 사람들라는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의 틀에 매이기 싫어서라고 대답했다. 교회를 다니는 일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꼭 교회라는 틀에 속박될 필요가 있나 하는 반항심에 한두 주 교회를 안 나가다보니 자연스럽게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든가 텔레비전 예매가 가나안 성도들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경우도 많다. 목사에게 시험 당하고, 교인들에게 시험 당하다보니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조차 싫어졌다. 교회에 나가서 그런 인간들을 보느니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깊은 일본에 20세기 초 성경은 믿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 무교회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무교회주의가 전체 기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일본의 기독교 신자가 고작 전체 인구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196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Jesus is Yes, but Church is No)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 저마다 신앙은 간직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결과 신앙 자체가 흐지부지해져버렸고 박제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맞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중요하다. 3세기 기독교가 한창 박해를 받는 시대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 때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그가 한 유명한 말,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는 없다.” 키프리아누스에게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구원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교회에 머무르고 속하는 일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신앙의 숭고한 표현이었다.

이런 정신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대로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왔다. 그래서 칼빈도, 루터도 똑같이 주장했다. 개혁가들에게 있어서 교회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었다. 루터는 이런 말도 했다. “그리스도를 찾는 이라면 먼저 교회를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이는, 그 자신을 의지하거나 그 자신의 이성으로 천국에 닿겠다고 하지 말고, 교회로 가야 한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몰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는 진리도, 그리스도도, 구원도 없기 때문이다.”

가나안 성도가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한편 마음으로는 그들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도 있다. 오직 교회가 세상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으면 이렇게 팔시를 받을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그때에 자신은 교회를 떠났을 뿐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다른 사람,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자기가 교회를 떠난 것은 순전히 그들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가나안 성도들에게 고든 콘웰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신앙은 후원을 필요로 한다.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곧바로 시들어버린다. 우리는 격려를 주고받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신념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다.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계속적으로 힘을 불어넣어주어야 한다.” 목회자가 보기에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불안정하다. 그래도 교회에 모여야 산다. 그래야 개인도 살고 사회도 살며 교회 자체도 산다. danielkmin@yahoo.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내 삶에 '은퇴' 는 없다!

(1면에서 계속)

일부 고용주는 나이 많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약화, 의료비 상승, 새로운 기술·도구 사용 능력의 미흡을 우려하지만 몇몇 기업은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다. 그들은 경험 많은 베테랑과 젊은 직원을 짝지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부터 유연 근무나 시간제 근무를 허용하는 단계적 은퇴 계획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회사들은 60대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들은 동료의식과 관장은 급여를 그리워하지만 정식 직원의 강도 높은 업무는 원치 않는다. 기업들이 그들을 활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 많은 직원은 애사심이 강해 젊은 직원보다 더 오래 한 직장에 머문다. 그에 따라 이직률이 줄면서 신규 채용과 신입 직원의 훈련비용이 줄어든다. 또 나이 많은 직원은 경험과 인맥, 기술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따라서 젊은 직원보다 더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계 사정을 잘 알아 문제가 생길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세계적인 타이어 제조업체 미슐랭의 미국 본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에 있다. 그곳 직원 중에 특히 고령자가 많다. 직원 1만 6000명 중 약 40%가 50세 이상이며 그들 대다수는 그곳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전미퇴직자협회(AARP)가 고령자를 위한 최고의 직장 중 하나로 꼽는 미슐랭은 직원의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유연 근무, 압축 근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근무 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낮추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 재택근무, 단계별 은퇴 프로그램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은퇴를 선택하는 직원도 회사로부터 임시 업무, 컨설팅 또는 하청 업무, 심지어 정식 직원까지 다양한 고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의 받는다.

미국 미슐랭의 인사 담당 수석부사장 데이비드 스테퍼드는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하고 좀 더 유연한 근무를 원할 뿐 완전히 그만두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미슐랭은 사무직 전문 인력만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숙련기술직 인력(자동화 전문가, 전기 기술자, 기술 지원팀 등)도 오래 근무해주시기를 원한다. 스테퍼드 부사장은 "그런 직종은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이 적어 충원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요즘 제조업체는 전부 그런 인력 부족에 허덕인다."

텍사스 주 휴스턴의 존슨 스페이스센터 건너편에 위치한 항공우주 기술업체 MEI 테크놀로지는 일이 몰릴 때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맡을 수 있는 은퇴자를 구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엔지니어 출신과 군에서 퇴역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MEI 테크놀로지의 인사 담당 이사 샌드라 스텐퍼드는 "업무량이 때때로 따라 들쭉날쭉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그들 같은 예비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젊은이 지향적인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몇몇 업체는 나이 많은 인력을 유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 있는 온라인 금융정보 매체 너드윌렛에선 기사 작성·편집 인력의 약 3분의 1이 50세 이상이다.

이 회사의 콘텐츠 담당 이사 매기 림은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최고의 인재를 원하며 철저한 검증 을 통해 채용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편집팀 90명을 채용하기 위해 이력서 8000장 이상을 검토했다. 너드윌렛은 가족을 데리고 집값 비싼 회사 부근으로 이주하길 원치 않는 전문 인력에겐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림 이사는 노련한 60대 중반의 자동차 전문 편집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전문 기자로 20년 이상 활동했던 필 리드는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그는 편집회의 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의 본사에 갔을 때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다고 말했다.

본사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화상 회의를 하는 그는 "나 스스로 나이를 의식할 때가 많았다"고 돌아섰다. "하지만 40-50대 편집자도 꽤 많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편해졌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가 많은 그런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원래 난 2년 뒤 은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직장도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은퇴할 이유가 없다."

소망 칼럼

기도만이 희망을 이루는 길이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마7:7)는 적극적인 기도의 모습을 가르치셨다. 죽음에 처한 사람이라면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죽음에 처한 사람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 중간에 포기하면 기도의 도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 동굴에 들어갔다가 흠이 무너져 그만 그 안에 갇히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 배낭에 넣어간 작은 삼으로 흠을 파내며 앞으로 조금씩 나갈 수 있었다. 조금만 더 파헤치면 입구가 나올 거라 믿고 계속 파고 또 파냈다. 그런데 몇 날 몇 일을 파도 입구는커녕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았다. 탈진해 쓰러진 그는 결국 삼을 내던져 버렸다.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죽는 편이 낫겠다" 그리고 나서 한 시간 뒤 구조대가 그의 시체를 발견했다. 최초 발견자는 한 등산객이었다. 산길을 오르다가 무너진 동굴을 발견했다. 그런데 흠더미 사이에 삼 끝부분이 보여 잡아 당겼더니 흠더미 속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단 한 삼을 더 파지 못해 죽은 셈이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인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 언젠가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주신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간절한 기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의 기도,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도하는 자를 기억해주시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고 기억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주시다면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보잘 것 없는 자라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는 그를 들어 가장 높이, 가장 귀하게 주신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고전1:27-28)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시며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님의 일에 써 주신다.

힘이 없다고,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거둔 성과들을 시기할 것도 없다.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삶에 충실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기억해주시고 더 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심으로 희망을 이루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바란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인생을 승리하게 되기 바란다. 기도로 꿈과 희망을 이루는 성도들 되기 바란다. 기도만이 희망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잡고 놓지 말기 바란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잠잠한 자에게 억지로 쥐어주지 않으시며 오직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공급하신다는 가르침이다.

nammicj@hanmail.net

밀입국 중남미 청소년들 위해 기도해야!

(2면에서 계속)

최근 발간된 HRW 보고서를 보면, 이들 갠단과 각 지역의 관련 폭력단은 수년간 주민에게 '전체세'를 요구했으며 상납을 거부할 경우 주민을 고문하거나 살해한다.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쳤던 불법 이민자는 강제송환 됐을 때 공격 대상이 된다. 복종을 요구하는 갠단은 오래 전 일도 있는 법이 없다.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에게는 가혹하다. 수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은 건드리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 이들은 갠단 가입 요구를 거절해도 살해 위협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가 갠단 권력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금은 교인도 타깃이다.

아코스타는 직접적 피해자다. 그와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17세 때 삼촌이 마라18 단원에게 목숨을 잃었다. 삼촌 2명 또한 복음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함께 죽임을 당했다. 마라18은 계속 교회에 가면 아코스타도 죽이겠다고 경고했다. 겁에 질린 그는 집을 떠나지 못했다. 도시를 떠나고 싶었지만, 갠단은 곳곳에 정보원을 두고 있었다. 위협을 피해 온두라스의 다른 도시로 도망가도 갠단은 끝까지 쫓아와서 살해한다.

아코스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어머니는 그에게 미국으로 빨리 오라고 말했다. 불법이민 알선업자는 아코스타 혼자 리오그란데를 건너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오도

록 한 다음 국경수비대에 자수하려고 알려줬다. 법에 따라 미성년 불법이민자가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온 게 아니라면 수비대는 이들을 미



온두라스 샌 페드로 솔라에 있는 교회(The Ministry of Harvest)는 복음주의 교회로 갠단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국에 있는 가족이나 후원자에게 보내야만 한다(없다면 위탁 가정을 찾아 맡겨야 한다). 수 주 후에 아코스타는 더럽에 있는 부모님과 재회했다. 미국에 온 얼마 후, 온두라스에 있는 갠단은 그의 다른 삼촌을 살해했다.

본국으로 강제추방 될 경우 갠단이 찾아와 그를 죽일 거라고 아코스타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HRW 보

고서에 따르면 온두라스 경찰의 부패는 심각하다. 경찰은 범죄단에 "면책을 주는 게 원칙"이다. 미성년자의 안전한 귀국을 돕는 대신 온두라스 정부는 지역 인권단체가 내미는 구조의 손길 또한 제한한다. 2014년 불법이민이 급증하자 온두

체 경고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자기 아이가 학교에 무사히 도착하고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문자를 보내줬다.

체포된 이민자, 특히 아코스타를 위해 싸우겠다고 나선 더럽 주민도 있다. 권익단체 알레르토 미매그리도리아(Aleria Migratoria) 노스캐롤라이나 지부의 도움으로 아코스타의 고등학교 반 친구들이 해시태그 캠페인 #윌딘식방(#FreeWildin)을 시작했다. 캠페인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졌다.

학보 편집장인 18세의 모건 휘트 하우스는 집회를 이끌고 롤리(Raleigh) 뉴스&옵서버에 사설 기사를 게재했다. "아코스타는 고등학교 과정을 끝낼 권리가 있다"고 쓴 그녀는 "죽을지도 모르는 온두라스로 추방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더럽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의원 2명이 캠페인에 주목했고, 버몬트의 윈니 샌더스도 합류해 아코스타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코스타는 아직도 구금 상태다. 지난 6월 고등학교 졸업식에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는 선생님에게 숙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졸업식은 결국 그냥 지나갔고, 아코스타는 아직도 소년원에 갇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ICE의 강제추방 위협에 대해 아코스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느낀다. 그들이 내 꿈을 산산조각 냈다"고 말했다.

라스 당국은 미성년의 신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동보호단체가 강제송환 아동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다.

ICE에 체포된 이후, 아코스타는 조지아 주 립킨에 있는 슈투어트 단기소년원에 구금됐다. 그의 체포 소식은 더럽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민자 부모는 ICE 차량이 어디를 순찰하는지 단

2016

패밀리터치 & 한국 지구촌 교회, 목회 리더십 연구소 공동주관

강사

이동원 목사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
목회 리더십 연구소 대표

날짜: 2016년 12월 5일 (월) - 6일 (화) (1박2일)
장소: DoubleTree by Hilton, Fort Lee, NJ 07024
등록비: \$200 (미자립교회 및 개척교회 목회자 전액지원)
대상: 현직 목회자 **부부** 선착순 30 커플, 타주 목회자 우선
참가 문의: 패밀리 터치 201-242-4422

www.familytouchusa.org

목회자 부부들을 위한 사랑의 순례



목회서신

세월을 아끼라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에베소서 5장 15-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있는 자 같이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메노이” 즉 “세월을 속량하라” 모든 기회를 다시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귀에게 빼앗긴 세월을 다시 빼앗아서 나의 모든 환경에서 기회를 잡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을 지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내 몸도 나의 삶도 이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을 위해 나의 남은 세월을 바쳐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메노이” 즉 “세월을 속량하라” 모든 기회를 다시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귀에게 빼앗긴 세월을 다시 빼앗아서 나의 모든 환경에서 기회를 잡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 값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내 몸도 나의 삶도 이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을 위해 나의 남은 세월을 바쳐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신 박학상 장로님께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저녁에 천국환송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장례집례를 맡았기에 박경희 목사님께 남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제 남편은 68년 생애를 사시며 저와 결혼해서 살아온 중에 마지막 6개월이 제일 아팠습니다. 폐가 굳어가는 병을 앓으면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하루의 전부였고 하늘나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의의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깨어있는 삶이요,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에서 깨고 죽은 자리에서 일어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천국갈 날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그날을 준비하며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 세월을 빼앗아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심판직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의의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깨어있는 삶이요,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큰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3절). 매일같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1장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의 위대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소홀히 할까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심판대에 선다할지라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 세월을 아끼는 신자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오전 10시15분에 남가주반석교회 박경희 목사님의 남편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보스턴장로교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총명(聰明)하다고 합니다. ‘총(聰)’이라고 하면 귀의 현명함을 가리키고 ‘명(明)’이라고 하면 눈의 현명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명총하다’고 하지 않고 ‘총명하다’고 한 것을 보면,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와 등경 위 등불의 비유(눅8)를 통하여 착하여 선한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며, 빛을 비추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비추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는 의미에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성의 총합함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습니다(골2:9).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으셨습니다(2절).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며,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3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4절) 예수님에게 천사들도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6절). 8절에서는 결국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다. 이런 문맥 속에서 2장에서 처음으로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하는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런 선포를 연결해주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책을 읽을 때 문장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앞부분을 자세히 살펴본 후, 현재 읽고 있는 문장을 해석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란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것

다(1절).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유념하여 굳게 간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1장에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히1:2).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더욱 유념하여 굳게 간직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굳게 간직해야 한다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원 일반적인 태도와 비교해보면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상적으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세요? 새로운 환경에 불안하세요? 영적으로 누군가 인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상황입니까?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 전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육신 따로, 영혼 따로 방황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들은 것을 굳게 간직하자

(히브리서 2:1-4)

라는 명령은 히브리서 전반에 걸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3:1). 그래서 결국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명령합니다(12:1).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큰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3절). 매일같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1장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의 위대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소홀히 할까요? 예수님보다

히브리서 1장은 1절의 후반부에서 이런 삶을 “흘러 떠나려가는”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아래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큰 효력이 있어서 어거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음부의 징벌을 받으셨습니다(2절). 하물며 천사보다 위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큰 구원”을 소홀히 하고 등한 시하는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싶으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부러 반항하지 않는 이상,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생활의 변화는 바로 듣는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세상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한 “큰 구원”의 진중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흘러 떠나려가는 이유는 나무 조각이나 죽은 물고기같이 목적 없이, 생명력 없이 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긴박감이 없이 집중하지도 않고 열심히 없이 사는 것! 결과는 가만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나려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시1:2).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시1:3).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와도 ‘일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

인생은 가만히 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호수가 아닙니다.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런데 아래로 흘러 떠나려가면 파멸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영혼의 드리프팅(Drift)’은 죽음과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을 바라보며 동동 떠 있는 상태로 있다 보면 무관심해 집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내리고, 은혜의 바다에 안전하게 정박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파도에 떠내려가서 결국 영혼의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6면으로 계속)

담임목사 청빙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의 시무가 2017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목회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실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격

1.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WEMA(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안수 받으신 분
2. 정규 신학대학 이상 졸업자, 목사 안수 후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3. 브라질 선교에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
4. 복음적인 교리가 분명한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첨부, 학력, 목회 경력, 일반 경력)
2. 목사 안수 증명서,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위 증명서 각 1부
3. 목회 비전 계획서 1부 (목회동기, 철학, 비전, 바람직한 교회상)
4.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를 포함한 가족포함-가족사진 포함)
5.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포어 설교 가능하신 분은 1편은 포어 설교 제출)
6. 연령 (40~60세)
7.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밀봉 날인과 추천인 연락처 포함)
8. 건강 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제출방법

1. 우편주소 : R. Mamoré 71 - Bom Retiro, SP - Brasil CEP : 01128-020
2. E-mail : andrejhong@hotmail.com(Cel 55-11-99126-8574) 청빙위원회 서기 홍정표
3. 서류마감 : 2016년 9월 30일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시고(첨부파일 : 서류 - PDF파일 형태, 설교 동영상 - 동영상 파일 혹은 MP3), 우편(마감일 도착 전에 한함)으로도 보내 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모든 서류를 보냈음을 확인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 봉투에는 반드시 '담임목사 청빙 지원 서류 제출'으로 표기 부탁드립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서류심사에 통과된 분은 추가서류와 면담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파울루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 | | | |
|-------------|-----------------|-------|------------|-------|
| ★ 1년 구독료 | 미국 | \$100 | 유럽 | \$190 |
| | 캐나다 | \$110 | 남미 | \$190 |
| |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 아프리카 | \$190 |

| | | | |
|--|---|------------------------------|--|
| 신청 유형 |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 | |
|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 한글 : _____ | 목사 <input type="checkbox"/> | |
| | 영어 : _____ |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 |
| 배달 주소 | _____ | | |
| 전화/Fax | () ()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받는분 이름 | 한글 | 영어 | |
| 전화번호/Fax | () () | () () | |
| 배달 주소 | _____ | | |
| 교회/기관명 | _____ | | |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NO on PROP 64 “오락용 마리화나 발의안” 에 절대 반대!

지금까지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주들은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워싱턴 DC인데, 그 지역들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번 11월 8일에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메인 등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키고자 발의안으로 내놓았고 캘리포니아는 Prop.64 발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만일 이번 11월 대선 때 Prop.64가 통과되면, 이 발의안은 정식 “법안”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8일에

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학생들에게 마약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고, 마약과 술중독 처방이라든지, 마약후 운전 및 예방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며 그동안 그런 교육과 법적 집행비용 사용되었던 모든 비용들을 다른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 합법화 된 환경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므로 더 안전하고 통제가 쉬워진다.

5.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블랙마켓(black market)을 통하여 사서 사용하는데, 이

이웨이 경찰담당자들은 어떤 다른 단체들보다도 더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2. 오락용 마리화나를 아무리 어른들만 사용하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한집에서 개인이 6 plants 씩이나 집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합법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주위, 공원 등까지 오락용 마리화나가 퍼질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높기에,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른들이 마리화나를 한다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다.

3. 이 법안이 블랙마켓을 줄인

해서 일목요연하게 강조된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wCBgUHFk5Fc>.

7. 마리화나 1온스(약28그램)는 250불 이상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리화나를 살 돈이 있을 것인가?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가 통과된 콜로라도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로 조직적인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보고서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Prop.64를 반대하는 경찰 연합 단체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만일 Prop.64가 통과되면 범죄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것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

마리화나 5개주 합법화...캘리포니아주 11월 8일 결정 세금창출, 아동안전 주장 불구 뒷거래, 사고 범죄 증가

꼭 기억하시고 Prop.64에 반대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용으로 마리화나를 23 주에서 합법화 했지만 약용으로 사용하는 마리화나에도 문제가 있지만, 오락용으로 시민들 전체에게 마리화나가 오픈된다는 것은 곧 우리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YES ON PROP.64 의견: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발의안을 제안한 민주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발의안에 찬성하는 이유.

1. 어른들만 오락용 마리화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2.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를 통과시킨 다른 주들과 협력하고 캘리포니아 Blue Ribbon Commission on Marijuana 정책팀과 협력하여 가장 적합한 어른들만의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법을 만들어낼 것이다.

3. 마리화나에 대한 세금을 15%로 올려서 수익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창출하게 되며, 그동안 마약으로 인해 소모되어야 했던 법적 집행 비용들을 감소시

런 것들을 더 이상 뒷거래가 아닌, 자기 집 마당이나 기업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마약을 하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더 이상은 숨지 않고 사서 사용하거나, 자기 집에서 재배하거나 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NO ON PROP.64 의견: 오락용 마리화나를 반대하는 공화당 쪽 정치인들과 주로 경찰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

1. 오락용 마리화나사용이 합법화된다면, 그 결과로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고속도로(highway) 위에서의 차사고와 교통사고들이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The AAA Foundation for Highway Safety 리포트에 의하면,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워싱턴 주 같은 곳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들이 2배로 늘었다는 보고를 정부에 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과 고속도로 순찰대원한 단체들이 DUI STD를 Prop.64에 넣어서 운전할 때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문맥을 넣어야 한다고 해도 현재 Prop.64를 제출한 자들이 발의안에 그런 문맥을 넣지 않고 있다는 것에 하

다고 하지만 블랙마켓은 마약뿐 아니라 연제는 존재해왔기에 마치 총기사건이 총이 없는 지역에서 주로 생겨나듯이, 마약 역시 블랙마켓에서는 합법화 된 마약이 싸기 때문에 뒷거래는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줄뿐이다.

4.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95% 이상의 선전들이 하루종일 아무 필터링(filtering) 없이 마리화나를 미화시키고 유통하는 선전들로 무장한 쏟아질 것인데, 이런 선전을 보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자리 잡게 되는 마리화나에 대한 영상으로 인한 범죄, 정신적 고통, 떨어지는 학교 수업률 등, 오락용 마리화나가 이미 통과된 주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고들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5. 그러나 통제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작은 밭에서만 약용 마리화나를 재배하던 작은 기업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큰 회사들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식생활을 책임지던 일터를 잃어버리게 된다.

6. 아래 유튜브 링크는 Emeryville의 경찰서장이며 또한 캘리포니아 경찰서장연합회 법률위원장인 Jennifer Tejada에 의

는 우리 자녀들과 캘리포니아의 미래에 재앙이 될 것이다.

8. Prop.64가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할 것이라는 것도 일반 시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 오히려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이 늘어나면 실제로 시민들은 약물 재활뿐 아니라, 건강문제들과 법적문제를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상식적인 것이다.

명확한 사실은, Prop.64에서 명시하는 것은 “오락용 마약을 판단으로 거두어진 어떠한 금액의 세금들은 마리화나의 연구 등의 특정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고 일반 재정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법안에 정확히 명시되어있기에 오락용 마약을 판 세금이 시민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이나 도로 또는 복지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한다! 오히려 그동안 아이들이 받았던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들이 사라지게 되기에, 자녀들에게는 위험을 알리지 않고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의학적인 병명으로 생후 3개월도 못돼 죽었습니다. 이렇게 유아 때에 죽은 자들의 구원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가디나의 리

A: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난제에 속한 질문입니다. 유아시절에 죽은 수천 수억의 영혼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지구에서 겨우 몇 년 혹은 몇달, 몇주, 몇일, 몇 시간 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합치면 많은 수가 될 텐데 이들은 과연 죽은 후에 어디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나서 성경적 결론에 이르고자 합니다.

유명한 신학 주경 신학자인 윌리엄 헨드릭슨(William Hendriksen)이 쓴 내세론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로마케톨릭교회의 접근방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아시절에 죽은 자들의 구원문제에 대해 케톨릭 안의 지배적인 결론은 세례(영세)를 받지 못한 모든 아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단정 지으면서 그들은 소위 천국과 지옥의 중간상태라고 하는 변두리의 한 장소인 유아림보(Limbus infantum)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받는 고통은 적극적인 것이 라기보다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뵈는 복된 꿈을 가지지 못하는 슬픔을 당하고 있다(p.133)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아림보의 교리는 인간이 고안한 교리로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죽은 후 영혼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1절에 잘 진술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영혼들은 그때에 완전히 거룩해지며 가장 높은 하늘로 영접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으며 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 의하면 “선택된 유아는 구원”

들의 몸의 총명한 구속을 기다리고, 악인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지우는데, 거기서 그들은 고통들과 전적인 어두움에 머물며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보존된다. 성경은, 몸과 나뉘인 영혼들을 위해, 이 두 장소들 외에 아무 것도 인정치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유아 때 죽은 모든 자들의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한 대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유아에 대해서는 제10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아 시에 죽은 선택된 유아들은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또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나며 구원을 얻는다.”

유아들의 구원문제에 관하여는 정통교회 안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아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견해입니다. 찰스 하지(Charles Hodge)는 그의 조직신학 1권 26페이지에서 “유아시절에 죽은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아담과 그리스도와 사이의 유추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추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필드(B.B. Warfield)는 그의 교리사연구 2편 230페이지에서 “그들의 구원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의지에 의한 어떠한 행위와 별도로 그들이 영혼의 직접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영혼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됨으로 이루어진다.”

또 다른 한 가지 견해는 언약의 자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하나 그 외의 경우는 불확실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바빙크(H. Bavinck)는 개혁주의교의학 제3판 4권 711페이지에서 “언약의 자손들은 그들이 세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다른 유아들의 운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적극적인 판단을 삼가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L. Berkhof)도 비슷하게 유아 시에 죽은 경건한 자녀들의 구원에 관한 돌트회의 교회법에 동의하면서도 아직 분별이 없는 연령에 이르지 않은 이방인 자녀들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성경적인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p.638).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마크-하자라족(Aimaq Hazara)



중 하나이자 아프가니스탄과 북부 이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차르 아이마크(Char Aimaq)족에 속한다. 이들 부족 모두는 아이마크(Aimaq)어를 사용한다. 이 언어는

페르시아어에 속하지만 튀르크어(turkic)의 어휘를 사용한다. 수년 동안 차르 아이마크 부족은 여러 정부에 의해 이주하면서 흩어지고 합쳐지곤 했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반유목민족(semi-nomadic)으로 살아가는 부족으로 바위투성이 산지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다닌다. 이들은 무역통로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지역에 거주한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차르 아이마크족들은 혼합된 유산을 남겼다. 이들 중 대부분은 소련의 침공 시대, 또 이따른 내전에서 아주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삶의 모습

한때 아이마크-하자라족은 완전한 유목민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정 계절에만 이동하는 반유목민들은 가뭄과 부식으로 인해(erosion)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농부로 전업하였다. 이들은 원시적인 팥이와 나무 쟁기로 밀, 포도, 쌀, 보리, 귀리(oats), 멜론 그리고 야채 등을 재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이들의 문화에 있어서 부업으로 여겨지며 한 사람의 재산은 그가 소유한 가축의 양으로 결정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고기와 우유, 지방과 치즈를 제공하는 그들의 가축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동물의 가죽은 또한 천막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농사를 짓는 동안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마을의 돌집에서 거주한다. 이들의 가족 떼들을 계곡에 남겨놓고 모아놓은 곡식을 먹인다. 봄과 여름에 이들은 산지를 다니면서 천막에 거주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사회는 가부장적(patriarchal, male-dominated) 부계사회이다. 이들의 핵가족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는 대개 남자와 부모, 부인 혹은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진다. 젊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그 남편 가족의 일부분이 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에서의 정체성은 가족과 씨족에 기초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여자는 가족 때 돌보기를 돕기도 하지만 이들의 주된 업무는 카페트를 짜는 것이다. 각 부족 혹은 마을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로 전수되

는 그들만의 유일한 패턴이 있다. 식량이 부족할 때는 카페트 장사로 벌어들인 돈이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기도 한다. 카페트는 가족, 현금과 함께 결혼의 지불금(혹은 지참금)으로도 사용된다.

신앙

아이마크-하자라족은 헌신적인 무슬림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신앙을 이슬람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믿는 하나피 분파에 속한다. 이들의 강한 이슬람 신앙은 종종 기독교가 유일신관을 훼손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많은 무슬림들은 꾸란에 인용된 구약의 이야기들에 친숙하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영적 혈통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라고 주장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그 이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자유의 전사"들을 위해 군사적인 지원을 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정치적 전쟁과 인권침해로 분투하고 있어서 그 지원은 중단됐다. 전 국가가 소련과의 전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모든 마을은 파괴됐으며 식량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안전한 식수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어떤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지속되고 있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먼 거리에 널리 퍼져있음으로 인해 복음을 듣기가 어렵다. 현재 아이마크-하자라족에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2000년전 성경필사 두루마리, 컴퓨터기술로 깨끗하게 구현

이스라엘 사해 서쪽 해안에 있는 한 유대교 회당 깨뜨려 사아비린 두루마리 하나. 양피지로 만들어진 이 두루마리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손이 닿으면 부서질 정도로 취약하다. 이를 발견한 고고학자들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모셔둘 수밖에 없었다. 50년이 지난 뒤, 이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켈터기대학 컴퓨터학과 연구진이 1970년 사해 근처 엔게디에 있는 고대 유대교 회당의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경전을 해독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예루살렘 학자들과 컴퓨터 스텝 장비를 이용해 두루마리를 디지털 영상으로 구현했다.

판독 결과 두루마리는 2000여년전 만들어졌고 마소라 성경(Masoretic Text) 구절과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마소라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유대교 경전으로 구약성경의 바탕을 이루는 기독교 초기 경전이다.

디지털 영상으로 풀이된 두루마리의 글자는 깨끗하게 되살아났다. 이스라엘 문화재국 '사해 두루마리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프니나 쇼어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극찬했다.

구약 레위기의 첫 두 장이 자음만을 이용한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다. 고대 유대인은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문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첨단 컴퓨터 스텝을 이용한 고문서 판독이 향후 같은 유물의 비밀을 푸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탈리아 남부 헤르쿨라네움(Herculaneum·에르콜라노) 지방에서 발굴된 300여종의 고문서를 읽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헤르쿨라네움 고문서는 79년 베스비오 화산 폭발 당시 손상을 입었지만 현재까지 보존돼 있다.

W 브랜트 실즈 켈터기대학 연구진은 이탈리아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지방에서 발굴된 고문서들을 복원하겠다는 염원으로 지난 13년 동안 이 작업에 매달렸다고 NYT는 덧붙였다.

맨해튼 테러범, 수첩에 '빈라덴 칭송' 메모

뉴욕 맨해튼 테러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아흐마드 칸 라하미(28)의 수첩에 최근 미국에 테러를 벌인 단체와 범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WSJ에 "라하미가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수첩에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인 미국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고 밝혔다. 2011년 예멘에서 미군의 드론 폭격으로 사망한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핵심 인물 안와르 아비울라키, 보스니아라톤 테러범 차르니예프 형제, 포드후드 미군기지 총기난사범 니달 하산의 이름도 있었다. 범행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듯 "알라신이 아름다운 지혜를 주길 기도한다"고 적혀 있었다.

라하미가 체포되면서 다리에 총상을 입는 바람에 수첩은 피에 젖었지만 판독 결과 이 같은 글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라하미가 무슬림이 아닌 사람을 공격

하라고 촉구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첩에 '불신자 살해(killing the kuffar)'라는 메모와 알카에다 창시자인 오사마 빈라덴을 칭송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2년 전 라하미의 테러 가능성을 조사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고향인 아프가니스탄을 다녀온 2014년 남자 형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아버지 모하마드 라하미는 당시 수사관에게 "아들이 테러와 관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라하미는 NYT에 "수사관이 2개월 정도 체크하더니 '아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FBI는 "당시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정부기관의 자료를 조사했지만 테러와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라하미의 아버지도 함정에 한 말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라하미는 지난 17일 뉴욕 맨해튼 첼시 지역에 폭탄을 터뜨려 29명을 다치게 하고 뉴저지주 시사이드파크와 엘리자베스 기차역 등 5곳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IS 테러보다 추종자들의 공격이 더 위험'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 미네소타 등지에서 발생한 테러를 계기로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이념적 영향력 하에 있는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에 대한 테러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은 최근 IS가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연합국의 군사공세로 패주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IS로부터 '영감을 받은' 고립된 테러공격에 대해서는 IS와 별개의 행위로 구분을 지어왔다.

그러나 지난 주말 일련의 테러를 계기로 미국 내 테러 공포가 확산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IS와 고립된 테러공격의 상호 '연관성'을 인정하는 등 IS 세력이 아직 견제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IS와 같은 급진 이슬람 조직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고립된 테러공격이 IS가 직접 계획한 테러와 동등하거나 잠재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일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또 추종자들에 대한 이념적 영향력을 포함해 아직도 IS의 세력이 견재하다는 평가 속에 미 당국의 IS의 약화 주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테러 정보 분석 전문매체 '롱 워 저널' 편집자이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선임연구원 빌 로지오는 "고립된 범죄자들이 조직의 의지를 실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IS는 'IS에 직접 합세해 투쟁하는 것' 못지않게 항리에서의 투쟁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추종자들의 현지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S와 알카에다가 이들 고립된 추종자들이 동상 충성을 다짐하는 주요 단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욕과 뉴저지의 테러가 과거 테러방식과 아주 흡사하다면서 "보스톤의 경우처럼 사람이 물리는 지역에 폭탄을 터뜨리는 과거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행은 엉성했으나 기획과 조정은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울여를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는 '영감을 받은' 테러범의 공격으로 49명이 사망했으며 프랑스 니스에서

는 역시 IS로부터 사주를 받은 트럭 테러공격으로 84명이 사망했다.

헤리티지 재단 캐트린 셀비 연구소의 제임스 카라파노 부소장은 "영감을 받은 공격이 더 위험하다"면서 "테러 조직이 그들의 자산과 인프라를 투입하지 않고도 테러를 무상으로 아웃소싱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IS가 기획하지 않은 공격이라고 다소 안심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면서 "이는 IS에게 무료 점심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라파노 부소장은 IS가 아직 그들의 투쟁에 사람들을 가담시킬 만큼 역동적이며 이는 미국과 서방이 아직 IS를 충분히 약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S가 아직 '대리인'을 통해 적에게 타격을 가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이다.

국가안보 싱크탱크인 안보정책센터의 짐 헨스 부소장은 "일부 측면에서 IS가 지난 2년간 막대한 미국과 서방과의 투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알카에다이든 IS든 이들은 포춘 500대 기업과 같은 내부 상하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는 민간 지하도 단체"이며 "이들은 연결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라고 강조했다.

특수부대 출신의 헨스 부소장은 "이데올로기를 통한 연결은 온라인을 통해 '만약 당신이 우리처럼 샤리야법과 이슬람의 지배를 신봉한다면 당신은 우리들의 일원'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폭인 피격→소요→과잉대응→또 충격' ... 악순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에서 경찰의 폭인 사살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돼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에 무고한 흑인이 희생되는 일이 끊이지 않아 흑인사회가 집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팻 매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주지사는 21일 샬럿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경찰의 긴급 요청으로 주 방위군과 고속도로순찰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날 흑인 남성 키스 라몬트 스콧(43)이 경찰 총격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진 뒤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다. 둘째 날 시위는 평화적으로 시작됐다가 폭력 사태로 번졌다. 시위대는 경찰에 벽돌과 물병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쓰레기통에 인화물질을 넣고 불을 붙여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최루탄 발사로 대응했다. 혼란을 틈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현금인출기(ATM)를 부수고 돈을 꺼내는 사람도 있었다.

샬럿시는 시위대 중 1명이 다른 민간인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발표했다가 사망이 아닌 중태라고 정정했다. 경찰 4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니퍼 로버츠 샬럿 시장은 시위가 계속될 경우 통행금 지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위를 촉발한 스콧의 죽음에 대해선 경찰과 유족의 주장이 엇갈린다. 유족은 당시 스콧이 비무장 상태로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총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려 아바트 단지에 갔다가 권총을 든 스콧과 마주쳤고, 그가 총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에 불응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흑인 남성 테렌스 크러처(40)가 경찰 총격으로 숨졌다. 크러처는 당시 백인 여객의 요구대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기 차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총에 맞았다.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19일 공개된 직후 수백명이 경찰본부

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으로 흑인사회가 동요하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두 후보가 강조한 부분은 달랐다. 클린턴은 "경찰에 살해된 미국인 리스트에 크러처와 스콧의 이름이 추가됐다"며 이런 총격이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폭력과 소요 사태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흑인사회 폭력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불심검문(stop-and-frisk)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색인종에 집중된다는 비판 때문에 폐지된 불심검문 제도를 되살리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는 "뉴욕에서 불심검문을 시행했을 때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1990년대부터 시행된 불심검문은 2013년 소수인종 인권을 침해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중단됐다.

대선 첫 번째 TV토론...안보도 힐러리가 '勝'

첫 번째 TV토론을 시청한 유권자 10명 중 6명은 클린턴의 손을 들어줬다. CNN은 26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인 ORC와 유권자 52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더 적합한 인물'로 67%가 클린턴을 뽑았고 트럼프는 32%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클린턴이 생각보다 선전했음을 의미한다.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26% 포인트 차이로 트럼프를 이길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35% 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클린턴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 건강이상설도 무난하게 지나갔다. 워싱턴포스트는 "클린턴의 차분한 대응이 지지자에게 확신을 줬고 트럼프를 고려하던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풀이했다.

주요 현안 이해도에서 클린턴은 68%, 트럼프는 27%의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가 강력하게 내세운 안보 문제에서도 클린턴이 후한 평가를 받았다. 클린턴이 외국인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62%, 트럼프는 35%였다. 테러 문제도 54%는 클린턴이 더 잘 해결할 것이라고 내다봐 트럼프(43%)를 앞질렀다. 반면 경제정책은 엇비슷한 성적표를 받았다. 51%는 클린턴을, 47%는 트럼프를 지지했다.

트럼프는 토론 중 공정하지 못한 비난으로 신뢰성을 스스로 갱아먹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토론의 공정성 평가는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토론 중 상대방에게 트럼프는 정당한 비판을 했다'고 평가한 유권자 중 남성은 58%로 여성(44%)보다 많았다. 반면 클린턴의 공격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노골적인 적개심도 여론을 불평하게 했다. 트럼프는 오바마를 "당신(클린턴)의 대통령"으로 표현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유권자들은 "트럼프 당신의 대통령도 오바마"라고 일침을 가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도 만들지 못했다"며 "심지어 사회자의 토론 진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는 클린턴에게 말만 하고 행동은 없었다"고 몰아붙였는데 사실 그 말은 본인에게 더 맞는 얘기"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1차 토론은 끝이 아니다. 아직 두 번의 토론이 남아 있어 유권자들은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자 중 절반은 "이번 토론이 누구에게 투표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토론으로 클린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4%, '트럼프에게 돌아가겠다'는 18%였다.

(1면에서 계속)

비록 숫자상으로 2007년 26%에서 2014년 24%로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동일한 기간에 오히려 복음주의자들이 증가했다. 현재 미 성인 중 6천2백만명이 복음주의자로, 2007년 6천만명에 비해 2백만명이 증가했다.

한편 복음주의 교회의 불확실한 미래 전망 논란에 대해, 베일로 대학의 종교연구소 리처드 담담자 브라이언 잔슨과 고든 멜톤은 복음주의 운동은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한다:

"남침례교회마저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전체 복음주의는 미국 종교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세를 보여준다. 이처럼 중요한 경향은, 종교적 '넌스'의 급증으로 인한 선입견이나 불안을 잠시식힐 정도로 미국 기독교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잔슨과 멜톤은 또한 상당한 '넌스'가 교단이 없는 교회들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 언론이 간과하고 있다고 말한다.(다음호에 계속)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폭풍 스케줄에도 제가 말씀으로 즐겁고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란 말씀입니다(시90:14).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 -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시작하는 하루! 그러면 하루 종일

시간의 주머니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거짓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고, 욕심과 근심과 염려의 무게로부터 해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시118:28).

아직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높이는 일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을 높이지 못했지만 결심해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간과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루를 살아 보겠습니다. 결심하는 연약한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오랫동안 흘러 떠 내려가지 않습니다. 잠시 흘러 떠 내려가는 혼돈 가운데 있다고 해도

성령의 햇빛과 같이 솟아오르는 소망의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소망이시고,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념하며 굳게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chang@bostonkorea.org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11. 임정수

임정수(林正秀)는 1876년경에 태어났다. 그가 8학년까지 공부한 것으로 보아 중학교 2학년까지 학교 공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한국을 떠나기 직전 그는 평양에 거주했고, 그의 마지막 교회는 평양 남산현 감리교회였다. 1893년 4월 제임스 홀 선교사와 김창식 목사가 평양 시내에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산재 언덕에 교회를 세우고 본 교회를 남산현교회로 불렀다. 미국 북장로교가 세운 장대현교회와 견줄 미국 북감리교가 세운 평양 최교회다. 1896년 부임한 윌리엄 A. 노블 선교사가 1903년에 150명의 규모에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남산현 감리교회를 신축하였을 때 임정수는 권사였다.

성, 김T.S. 그리고 매미 H. 와드만과 J.C. 이빙 등 2명의 외국인과 더불어 사역하였다. 그는 1909년 이후 파송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가 사역한 총 기간은 2년으로 보면 되겠다.

교회 사역을 하던 기간이었던 1906년 12월 2일에 임정수는 민

남산현감리교회 권사로 1903년 아내와 함께 하와이로 파송 한인합성협회, 하와이국민회 등에서 민족 운동에 적극 참여

미하와이 교포의 자치, 민족의식의 고취, 생활의 개선, 전통문화의 수호 유지를 목적인 공진회 조직에 참여하였다. 그의 민족 운동은 빼어났다. 1907년 9월 2일 하와이의 24개 한인단체 대표 30명이 호놀룰루에 모여 한인합성협

미한인국어창가 발간회를 조직하고 '집생각', '혼인에 쓸 노래', '노인이 어렸을 때를 생각', '애정', 그리고 '파플라 노래' 등 5곡을 모집했다. 1919년에는 임정수가 국민회 로스앤젤레스 지방회 부회장으로 당시 지방회 회장 박재형을 보필하며 활동했다.

1938년부터 1940년까지 대한인국민회 로스앤젤레스 지방회 집행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다. 그가 눈병으로 안력을 쓰기가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사업에 힘쓰면서도 집행위원장으로 변함없이 시무함을 신한민보는 "그 정형을 아는 이는 자못 고맙게 여기는 것"이라고 쓰

1930년부터 1936년까지 1936년 8월 미주 지역 한인 여성단체가 통합한 '대한여자애국단' 조직에 임정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국 독립운동, 가정 일용사물을 절약하여 독립운동 후원금 마련, 국내 동포 구제 사업, 가정에서 일화 배척 그리고 부녀 동포 독립사상 고취를 추진했다.

임정수는 민족운동의 요람인 평양 남산현 감리교회 출신답게 미국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제71주

년 광복절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임메블

임정수의 부인 임메블의 메블은 세례명이었고, 한국어 이름은 임화연이었다. 임메블은 1884년 경에 태어나 평양에서 거주했는데 임정수와 결혼하여 19세였던 1903년에 하와이로 이주했다. 임메블은 1919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인애회가 조직될 때 회장으로 선임되어 동포간의 친애장려, 사회사업과 교회 사업 후원, 가정 일용사물에 일화 배척 및 독립운동 후원을 추구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식사에 고기 없는 날로 정하고 수요일은 간장 없는 날로 정하여 식료품을 절약하고 가용을 절약하여 식구마다 독립운동 후원금을 보내기로 결의하고 앞장섰다.

1919년 8월 미주 지역 한인 여성단체가 통합한 '대한여자애국단' 조직에 임메블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국 독립운동, 가정 일용사물을 절약하여 독립운동 후원금 마련, 국내 동포 구제 사업, 가정에서 일화 배척 그리고 부녀 동포 독립사상 고취를 추진했다.

임메블은 1930년부터 1936년까지 그리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여자애국단 총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다. 이로써 남편 임정수와 더불어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기에 충분했다.

damien,soh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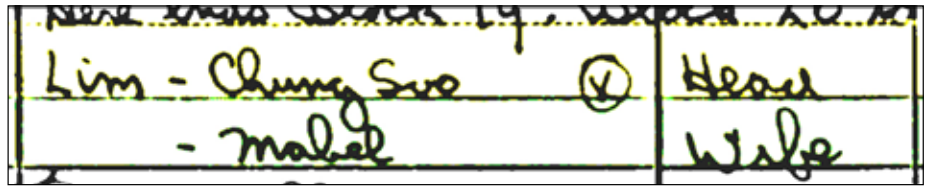
양성수 발기에 동참했다. 이듬해 대한인국민회 총무를 맡은 그는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다.

로스앤젤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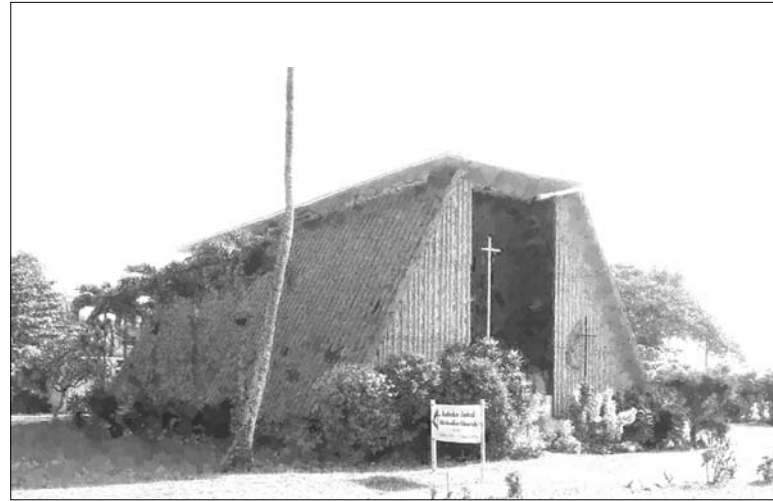
임정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면서도 민족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1918년 이전, 서학빈, 정극수, 김해석, 이학현, 김태진, 안상학, 한봉석, 유지암, 이영수, 강영각, 그리고 김경순과 함께 북

가 지명되었으며, 유사에 김성권, 황성택, 박재형, 이영수가 선정되었고, 주일학교 교장에 박경신이 선정되었다. 임정수의 부인 임메블은 1932년 본 교회 산하 여성 여자청년회의 재무로 섬겼다.

임정수의 민족운동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계속된다. 임정수는



1940년 인구조사: 가장 임정수, 아내 임메블이라고 적혀있다.



2016년 현재 카후쿠 연합감리교회. 임정수가 1905년에 본 교회에서 사역했다.



평양 남산현교회



1906년 조지존스 선교사의 방문에 한인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이 가운데 임정수가 있어야 한다.

15일 하와이에 도착했다.

1905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지방연회는 임정수를 오아후 섬의 카후쿠와 와이알루아로 파송하였다. 이후 임정수의 영어이름이 Chung Soo Im에서 Chung Soo Lim으로 변경된다. 카후쿠 교회는 1903년에 조직되었는데 1904년 말 교인 수는 37명이었다. 본 교회는 오늘날 외국인교회가 되었다. 박은배의 "새로운 사람들"에 따르면 와이알루아 교회는 1904년 현재 남자 71명과 여자 16명, 그리고 자녀 5명 등 92명의 교인이 있었다. 농장의 107명 가운데 대부분이 교인이었던 셈이다.

임정수는 1907년에는 파송을 받지 않았는데 1908년에 다시 오아후 섬의 와이알루아와 와이아오로 파송된다. 1908년에 그는 교사로도 임명되었는데 민찬호, 이지

회를 조직하고 조국의 국권광복을 후원하고 재류 동포의 안녕을 보장하며 교육 사업을 증진하는 등 3개조의 목적을 통과시켰을 때 임정수는 정명원과 함께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1909년 2월 재미 한인의 조국 광복 운동을 목적인 국민회가 창립될 때 임정수가 하와이지방 총회장으로 선출된다. 창립 축하식이 있던 날 하와이에서는 전체 동포가 휴업하고 한인의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았고, 1천여 명 동포가 호놀룰루에 모여 경축할 때 각 농장과 관청에서 이날을 한인의 경절로 인정하였고, 하와이 정부에서 총독대리와 여러 관리가 축하식에 참석하였다.

임정수의 나라 사랑은 교회 사역을 그만둔 후에도 계속된다. 1911년 임정수는 신홍균, 박중수, 김우호, 이내수, 임봉안, 이재연, 유동면과 더불어 호놀룰루 학생

샌프란시스코

임정수는 1921년경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여 황보정걸이 하던 프레시팔라 사업을 매득하고 영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1923년 12월에는 그가 장래 흥왕의 희망이 많다는 생각에 양요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1925년 9월에는 본 사업을 전매하고 있다. 임정수의 민족운동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계속된다. 그는 1922년 대한인국민회 샌프란시스코 지방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다.

1923년 6월 21일자 신한민보는 임정수와 그의 부인 임메블의 훈훈한 마음을 소개한다. 그들은 하와이에 거주할 때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많이 수양하였는데 시애틀에 거주하는 부인 없는 김원호가 홀로 사는 처지에 그의 7세 난 '돌아이나'를 양육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을 듣고 '돌아이나'를 입양했다.

로스앤젤레스

임정수는 로스앤젤레스로 다시 이주하였다. 1931년 5월의 신한민보는 그가 선우란과 동업한 서양 요리점을 보도하였고, 1935년 12월에는 양복세탁업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그가 이곳에서도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26년 9월 나성 남감리교회가 조직될 때 임정수는 평신도 대표로 선임되었는데 담임 목사에는 한승곤 목사

2016 스테튼 아일랜드 교협 연합 부흥집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유병용 목사
서울송파브니엘교회

10월 14일/15일/16일

장소: 뉴욕만백성 교회
1250 Rockland Ave., S.I., NY 10314
718-701-4953, mbsumcny@gmail.com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14일(금) 오후 8시*
성령의 능력으로 (행1:6-8)

15일(토) 새벽 6시
기도 (눅18:1-8)

15일(토) 오후 8시*
축복의 원리 (창32:24-29)

16일(일) 오전 8시30분, 11시
기적의 신앙은 (요2:1-9)

16일(일) 오후 5시
축복의 열매 (삼하6:1-11)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시간에는 자녀들을 돌봐드립니다.

스테튼 아일랜드 교회 연합회
그리스도 한인 연합 감리교회(김영훈목사), 뉴욕만백성교회(이종범목사), 뉴욕성결교회(장성진목사), 새생명 커뮤니티교회(김홍석목사), 순복음 새소망교회(오조나단 목사), 스테튼 아일랜드 연합 장로교회(김명기목사), 스테튼 아일랜드 은혜장로교회(홍명철목사), 스테튼 아일랜드 중앙교회(김성권목사),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교회(정광원목사), 온누리 영광교회(김해근목사)



성경도 신앙 (16)

청교도들의 예배 (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 제일교회)

(다)설교
설교자의 자질: 설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 사역에 속한 것으로서, 이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일을 감당할 목사는 말씀 선포의 은사를 받은 자여야 하며, 원어 성경을 잘 알고 신성한 것을 다루는 데 필요한 교양과 학문을 익혀야 한다.
또한 신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무엇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여

예배 중의 회중의 자세: 공예배로 모일 때 준비된 회중은 모두 나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게으름이나 사적인 모임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아서는 안된다. 경건하지 못한 상태로 나오지 말 것이며, 담대하고도 겸손한 태도로 나와야 한다. 특정한 자리를 신성시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절해서는 안된다.
회중이 모일 때 목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자고 엄숙하게 요청하며 기도로 예배를 시작한다. 회중은 목사가 성경을 읽는 것 외에 예배 중에 어떤 것도 읽어서는 안되며, 사적인 대화나 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찬미하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시편 찬송가 서문에 이와 같이 말했다.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성령께서 만드시고 다윗이 노래한 시편보다 좋은 노래가 없으며, 이보다 더 찬송의 목적에 부합하는 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천히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를 배제한 세속적인 음악과 악기의 무분별한 사용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내용으로는 합당치 않은 것이다.

모든 회중이 부를 찬송에 대해 생각하자: 찬송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서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된다면 우상숭배자의 찬송이 되고 말 것이다. 시편 찬송가를 손에 들고서 가사를 읊미하며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선창하는 인도자가 한 소절씩 먼저 선창하면 회중이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회중의 찬양을 이끌었다.

4) 예배 지침서에 있는 목회에 대한 목사의 목사
주일예배를 위해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 목사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목사의 자세(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1장, 1992)를 생각해 보자.
첫째,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지 말고 근면 성실하게 하라. 둘째, 가장 유약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교하라.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알팍한 지혜를 의존하지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무엇인가에 끝없이 의지하고 싶고 사랑 받고 싶고 그래서 기록하고 의연하고 고상하고 지적이고 아름답고... 온갖 맛있는 것들로 자신을 퐁퐁 포장하고 살고 싶은 것은 어쩌면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의 본연의 열등감 때문일까? 이렇게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집착'의 끈이 되어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닐 때 그것들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나에게 땅으로부터의 집착을 하나 둘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날 가슴 속에 몽클 감격으로 꼭 차 온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세상을 향한 집착의 끈에서 나를 놓아 주실 때, 난 어느덧 한 마리의 새가 되어 어디론가 훨훨 자유로이 날아가고 싶어진다. 그래서 나는 하늘을 훨훨 나는 한 마리의 새를 좋아한다.

외롭고 삶에 지칠 때, 꽃대를 향해 달려가다 넘어질 때,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나는 푸른 초장에서 목자 되신 주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그림 앞에 내 눈이 고정된다. 그 양은 가장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이며 가장 약하고 무능한 양이기에 주님은 유독 그 양을 안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 한 마리의 양이 바로 '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어느새 충혈된 눈이 되어 그 양이 된 평안함을 맛보곤 한다. 그래서 나는 한 마리의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좋아한다.

어떤 모양으로 던져도 넘어질 듯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오뎅이, 뒤로 밀어도 다시 일어서고 옆으로 밀어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오뎅이를 보면,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거나 아 주 앞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심이라' 말씀이 생각난다. 오뎅이는 그 속에 무거운 납덩어리가 중심에 있어서 그 중심을 향해 일편단심 일어난다. 그렇다. 삶이 마구 흔들려도 오뎅이와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중심에 주님이 탁 버티고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는 마구마구 흔들어도 안간힘을 쓰고 다시 일어서는 오뎅이 인형을 좋아한다.

마치 숨이갈같이 두툼하게 싸여 온 대지를 하얗게 물들여 놓는 '함박눈'은 어느 곳에나 내려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린다. 그래서 지붕위에도, 차 위에도, 더러운 쓰레기 더미 위에도 다 덮어버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치장해준다. 주님이 우리의 흉악한 죄를 보혈의 피로 다 덮어서 눈과 같이 희게 하셨듯이... 그래서 소리 없이 수북이 쌓여 온 세상의 모든 형체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함박눈을 나는 좋아한다.

여행은 익숙한 일상을 떠나 생면강산에 가는 것이므로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그것도 우리보다 문화수준이 낮은 선교지라면 더욱 더... 그러나 그 고생 속에서 얻어지는 값지고 귀한 새로운 경험들은 그 고생에 족히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그동안 익숙해져서 감각 없던 일상들(내 집, 교회, 가족, 일터...)이 참으로 귀하고 고맙고 좋은 것들인 것에 눈이 떠진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올 곳이 있는 여행을 좋아한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것 같은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 가슴이 움츠러지며 무수한 상념들이 지나간다. 한 해 동안 이루어보려 손을 쥘았던 많은 일들이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어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잿빛 구름과 매서운 바람, 바바리코트, 시린 손, 앙상한 나무, 기쁜 성탄절, 소망의 새해, 이 모든 사랑스런 것들이 담겨 있는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나는 좋아한다.

그리고 또 셀 수도 없이 많은 좋아하는 것들을 이 아침에 헤아려 보며 가슴 속에 바람처럼 이는 진한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하얀 백지위에 계속 느낌표(!!!)를 찍어본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느낌표 있는 삶이 되어 내 속에 고갈된 사랑의 에너지가 삶의 노래와 감사가 되어 흘러나오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동하셨듯이...

changsam01020@gmail.com

설교자는 성경을 잘 알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 회중의 자세, 찬송에 대한 지침 확실

야 한다. 목사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훈육의 효과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진리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의 의무: 설교할 본문에서 교리적인 교훈을 전하고자 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이어야 하며, 본문에 함축된 진리이어야만 한다.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청중으로 하여금 잘 알도록 하게 해야 한다.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되, 청중들을 훈육하기 위해 잘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 목사는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백한 단어를 사용하여 설교해야 한다.

예배를 위한 회중의 준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 설교자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듯, 청중은 준비된 말씀을 잘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예배 모범 지침서에서는 공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의 또는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 만일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예배가 시작할 때 함께하지 못한다면 사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말고, 늦게라도 공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장로교 합동측 헌법에는 주일에는 먹을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여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또한 주일 아침에는 개인이나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 받기를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예배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다.

(라)시편 찬송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칼빈의 예배에서는 시편 찬송을 불렀다.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도가 그 말씀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데 주어야 한다. 말씀 읽거나 설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것이며, 기도와 찬송은 그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에 대한 경각심: 어떤 지도자는 예배를 그것을 인도하는 설교자와 회중 간의 만남으로 여기는 것인데

이 시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노래하게 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주시면서 시를 주시지 않은 것은, 구약의 시편이 여전히 성도들이 공예배나 사적인 모임에서 불러야 할 찬송임을 암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엡5:16; 골3:16)는 시편의 다른 표현이지 오늘날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 가지 유형의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현대 교회의 찬양에 대해 숙고: 비성경적인 찬양의 실정에 대하여, 우리는 찬양의 부분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며 성경에 합한 예배를 위해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개혁교회의 성경적인 바른 신학이 찬송가 가사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가사가 성경적이며 개혁 신학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생각 없이 곡을 선정하고 부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채, 예배자들끼리 흥겨워하는 감정이나 음악 공연 같은 것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곡조도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잘 어울리는 것인지

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케 된다.

셋째,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회심과 훈육 및 사람들의 구원을 기대하되, 자신의 이득과 명예를 위해 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부자라고 부하지 말라. 넷째, 모든 교리와 교훈, 특히 책망함을 지혜롭게 구성하여 전하라. 각 사람과 지위를 존중하고 목사 개인의 열정과 악의를 드러내지 말라.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라. 몸짓이나 음성, 표현을 기르라. 여섯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목사의 경건한 갈망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라.

일곱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서 청중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양들 앞에서 매사에 본이 될 것이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전지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간구해야 한다. 자신을 살피고 주님께서 맡기신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younsuklee@hotmail.com

제3회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들을 돕기 위한

찬양선교음악회



바리톤 장상근



박트리오



갯조 이미지



소노리스 심어즈



▶ L.A. 남성성교회합창단



▶ KAM 코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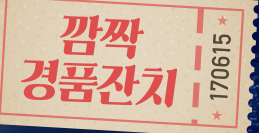
일시 2016년 10월 2일(주일), 오후 6시

장소 생명샘 교회

(18718 Grayland Ave. Artesia CA 90701)

문의 (562) 714-0691 (영육구원)

무료입장



주최 : 주사랑선교교회 (미주찬양선교회)

후원 : 크리스천비전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우리방송, 미주부흥사협회



목회서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2)



여승훈 목사

낮선 지역을 운전해가면서 약 10년전만 해도 없었던 습관이 하나 생겼다. 손은 핸들을 잡고 눈은 계속 GPS를 체크(check)하는 것이다. 그런데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가 GPS를 체크하는 순간을 놓치게 되면 지나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사람이 가진 특성중의 하나는 초점을 자주 놓쳐버린다는 것이다. 초점을 놓치면 결과는 방황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종종 방황하는 시기를 만날 때가 있다. 그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필자는 그 이유를 초점에서 찾고 싶다. 한마디로 초점

해야 할 곳에 초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초점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초점해야 할 곳에 대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초점하여야 할 곳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 초점할 때 더 이상 방황은 지속되지 않고 멈추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교회였던 반면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책망도 듣지 않았던

귀한 교회였다. 모진 핍박과 박해로 인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증명해 보였던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다 빼앗길 정도로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교회, 정말 귀한 교회 아닌가? 그것도 행할 때가 아니라 모진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 가운데서 말이다. 자, 이런 귀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계2:9).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던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셨다. '환난'과 '궁핍'이다. 환난은 무거운

물건에 눌려서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인하여 받았던 핍박과 박해를 뜻한다. 궁핍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말한다.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인하여 서머나의 사회로부터 혹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받았다.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때문에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직업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달리 표현하면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부자다' 이런 말이다. 아니 짐 뺏기고 직장 빼앗기고 누구 하나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람도 없는 형편에 부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진다. 누가 진짜 부자이고 아닌지를 현실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하루에 배 끝나고 관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살아생전에 부자로 치부

해주었던 근사한 하우스도 자동차도 비즈니스도 그 어떤 것도 그 무덤에 함께 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궁핍 같은 하우스에서 살았던 아니면 작은 아파트에 살았던 무덤에 들어갈 때는 모두가 빈손이다. 무덤 앞에서 누가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사도 바울의 말을 상기해보자.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후8:9).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최고로 부요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초월적으로 부요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부를 위해서 그가 어떻게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인가? 이 세상 모두를 소유하신 분이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이런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영

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얻고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 무덤 앞에서 판단되는 진짜 부요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늘 유업을 받게 될 자들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지내던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가 부요한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모진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던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 묻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묻고 싶었을 것이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계2:10). 이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이다. 비록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쉽게 돌아서지 말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흔들림 없이 죽기까지 다하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교회이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미국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종운 목사(한국삼일대표)가 설교하는 모습

한반도 평화통일과 미국위한 구국기도회 북핵폐기 강의 및 공동서명도

한반도 평화통일과 미국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9월 25일 오후 5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주님의영광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한기형 목사(삼일대표) 사회로 열린 1부 찬양과 예배는 한기홍 목사(대표대회장)이 대회 개최선언을 했으며 박희민 목사, 신승훈 목사, 임태량 회장, 김재권 회장이 대회 공동 선언했다. 그리고 신승훈 목사(대표대회장)가 환영인사를, 민승기 목사(OC 교협회장, 공동대회장)가 대표기도를 했다. 이어 교회연합성가대(주님의영광교회, 임마누엘선교교회, LA언약교회, 광영교회)가 특별찬양했으며 이창건 목사가 성경봉독을, 이종운 목사(한국삼일대표)가 설교했다. 2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설명과

구국기도회는 북한 핵 폐기홍보 홍보 동영상 소개, 은혜한인교회 장로 성기단 찬양, 서경석 목사(한국 공동집행위원장)가 대회취지 설명, 탈북자 송지혜 집사가 탈북자 간증, 김소연 목사 찬양물동단의 찬양을, 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장)가 '미국에서 북핵폐기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강의를 했다. 이어 구국기도회가 열렸는데 류종길 목사(임마누엘 선교교회),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정우성 목사(광영교회), 엄규서 목사(원서 그리스천교회), 강순영 목사(자마 대표)가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대회임원 일동과 참가자 전원이 북핵폐기 공동서명을 했다. 이날 기도회는 송정명 목사와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들이 연합공동기도를 함으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예장 국제총회 목사안수식에서 권상욱 등 9명이 안수를 받았다

예장합동국제총회 9명에 목사안수식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총회장 이서 목사) 목사 안수식이 22일 오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려 권상욱 전도사 등 9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2016 국제총회 및 GMI세계선교대회 기간 중에 열린 목사 안수식은 김중욱 목사의 집례로 시작되었으며 총회장 이서 목사가 '기도와 사역자'(호1:1-9)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이날 9명의 전도사들에게 안수했다. 이날 안수 받은 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상욱(은혜한인교회) △구자용(주님의영광교회) △박성범(은혜한인교회) △문기훈(은혜한인교회) △엄재돈(사랑의빛선교교회) △

조현민(샌디에고사라교회) △주선민(타타르스탄선교사) △지데니스(주님의영광교회) (정리: 박준호 기자)



메릴랜드교협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참교회-에버그린장로교회 통합 김동규, 박진호 목사안수식

KAPC 뉴욕동노회, 동남부노회 정기노회

뉴욕동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동노회 제79회 정기노회가 9월 20일 오전 온누리장로교회(담임 조문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무처리를 통해 타교단인 에버그린장로교회 문덕연 목사의 목사회원 가입 청원과, 뉴욕참교회와 에버그린장로교회의 연합 허락 청원을 다뤘다. 문덕연 목사는 교단 신학교인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서 1년간 공부한다는 조건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였으며, 양 교회의 통합은 허락했다. 지난 3-4년 사이 뉴욕참교회는 오오샘 목사와 이신권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또 김동규와 박진호 목사 안수 청원을 허락하고 목사 안수식을 열었으며, 오술길과 윤바른 전도사의 목사후보생 고시 청원을 받아들였다. 노회 회무도중 오후 2시에 진행된 목사 임직예배는 노회장 황상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이날 안수를 받은 김동규와 박진호 목사는 모두 목사의 아들이다. 김동규 목사는 (42세)는 필라에서 목사로 회장을 역임한 김치수 목사의 아들로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하고 온누리장로교회에서 EM 사역을 하고 있다. 박진호 목사(34세)는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의 아들로 고든콘웰신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EM 사역을 하다 이날 목사안수를 받았다. 목사 임직예배는 장기수 목사가 기도했으며 박희근 목사가 성경봉

독을 했다. 노회장 황상하 목사는 갈라디아서 1:1-10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본문에 나오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전했다. 김동규 목사는 답사를 통해 42년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이어 박희연 목사의 광고와 김남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동남부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동남부노회(노회장 최중현 목사) 제 72회 정기노회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노회 및 수련회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체로키에 있는 체스트너넬트리언에서 개최됐다. 개회전 이후 3시부터 모인 임원 및 임사부 모임에서는 헌의문서 및 노회개최에 대한 검토를 거쳤고 임사부(부장 김종권 목사) 부원들의 신입회원 임의권, 조용기 목사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이어 오후 5시에 드린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한일철 목사(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의 사회로 고인권 장로가 기도하고, 최종현 노회장(용한교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자"(렘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목회자가 소도시이므로 한적한 주위환경으로 인해 성경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음을 느껴 감사하다"고 말하고 "항상 말씀의 소원은 사도바울과 같



KAPC 뉴욕동노회 회원들



KAPC 동남부노회 회원들

이 하나님을 증인삼아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목회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만이 아닌 우리 동역자 모두의 소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교했다. 송영성 목사 축도 후 가진 성찬식은 오적목 장로(용한교회)가 기도하고, 최진목 목사(갈보리장로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요6:30-3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집례했으며, 강상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 및 성찬식을 모두 마쳤다. 목사총대 22명, 장로 총대 7명 등 총 29명이 참석한 회의는 사무보고, 회계보고 및 각부보고, 신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계보고는 총수입 18,626.39달러, 총지출

10,675.29달러, 잔액 7,951.00달러로 보고됐다. 이날 심의를 마친 8개의 헌의문서인 1)목사회원 2명의 타 노회로의 이명 2)노회 상회비에 관한 청원 3)교회명칭 변경의 건 4)담임목사 시무 사면의 건 5)2명의 목사회원 가입 청원의 건 6)수술후 회복으로 인한 회원 환자에 대한 위로금 청원의 건 등이 통과됐다. 또한 오적목 장로에게 감사패 수여가 있었으며,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노회를 마치고, 20일부터 21일까지 교육부(부장 김용환 목사) 주최의 노회 가족수련회로 이어졌다. (기사제공: KAPC 동남부노회)

감동과 도전...MD교협 복음화 대성회 강사 나성균 목사, 전기현 장로 간증, 세미나까지

메릴랜드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병은 목사)가 주최한 2016년 복음화 대성회가 나흘간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병은 교협회장 목사는 "연합부흥성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에 감

사하다"며 "뜨거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사 나성균 목사(살롱장로교회 담임)는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병래 목사)에서 열린 1차 연합성회(15, 16일)에서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와 '새 시대의 지도력'에 대해, 빌립보교회(담임 송영선 목사)에서 열린 2차 연합성회(17, 18일)에서는 '불타는 인생', '지금도 진행되는 기적'에 대해 설교했다. 나 목사는 대성회 내내 베드로, 요셉, 모세 등 성경의 인물들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믿음 아래 승리하는 삶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 집회에서 나 목사는 "자신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그 작은 기적은 계속 일어난다"며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시험의 단계, 감사의 단

계, 헌신의 단계가 있다. 시험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대답할 때는 믿음으로 대답해야 하고, 감사의 단계에서는 늘 현재에 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며, 마지막 헌신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감동 받을 만한 헌신을 드려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목사와 동행한 전기현 장로는 간증을 통해 아끼없는 섬김과 목사와 장로의 화합에 대한 교훈을 전달했다. 전 장로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고,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매번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다"며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반드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때리는 교인이 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1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목회자 세미나와 사모 세미나에서 나성균 목사는 "감동적인 설교 어

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1) 지식적인 전달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라 2) 단문으로 전달하라 3) 중층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훈련을 하라 4) 신선하게 하라 5) 그림언어를 사용하라 6) 적절한 예화를 사용하라 7) 암기해 설교하라 8) 열정을 갖고 오케스트라처럼 하라 9) 설교자의 생활로 모범을 보이라 10) 성령 충만 받도록 순간마다 기도하라는 10가지 팁을 소개했다. 사모세미나는 이기훈 목사의 외손녀이자 나성균 목사 부인인 신혜옥 사모와 순복음교단 창립자 중 한분인 광봉조 목사의 5녀 광선심 사모가 '복음과 순교 신앙'이라는 주제로 간증했다. 한편 메릴랜드교협은 10월 9일까지 불리비아 아동후원 및 예배당 건축을 위해 '일인 5달러' 모금활동을 펼쳐, 10-15일 불리비아를 직접 방문해 기금을 전달하게 된다. (기사제공: 메릴랜드교협)

동부교계 게시판



스태튼아일랜드교협 연합부흥성회

스태튼아일랜드교협(회장 김해근 목사) 연합부흥성회가 "성령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10월 14일(금)부터 16일(주)까지 뉴욕 맨해튼교회(담임 이종범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유병용 목사(서울 송파 브니엘교회 담임)로, 집회시간은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8시, 주일 오전 8시30분, 11시, 오후 5시.

▲문의: (718)701-4953

제8회 2016 바디워십 페스티벌

뉴욕한인청소년센터(대표 양희철 목사)가 주최하는 제8회 2016 바디워십 페스티벌이 11월 27(주) 오후 6시 뉴욕중신교회(담임 김해택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팀 당 100달러. 크리스천 그룹으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개인출전은 불가하다. 참가방법은 청소년센터에 사전등록(전화 혹은 이메일) 신청순 12팀. 음악은 6분 이내의 찬송가 혹은 가스펠송. 상금은 출전하는 팀이 추천하는 선교(선교사, 선교단체, 교회, 교회기관 등) 후원금으로 전달된다.

▲문의: (646)824-1857 최지호 목사

청년연합집회 "블레싱 뉴욕"

플랜플레이가 주관하는 청년연합집회 "블레싱 뉴욕"이 10월 15일(토) 오후 8시와 16일(주) 오후 6시 나무교회(담임 정주성 목사)에서 열린다. 첫날은 정주성 목사와 나무교회 찬양팀이, 둘째 날은 오인수 목사와 퀸즈장로교회 찬양팀이 인도한다.

▲문의: (718)838-4494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 15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지휘자 양재원) 제 15회 정기연주회가 10월 9일 (주) 저녁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칸타타 "주의 성전"(이상윤 작사, 김지영 작곡)이 초연된다. 베편제임버앙상블이 특별출연한다. 음악회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와 선교기금 모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917)658-3181

뉴욕순복음교회 가을축복 부흥성회

뉴욕순복음교회(담임 양승호 목사) 가을축복 부흥성회가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를 초청해 10월 14일(금)부터 16일(주)까지 열린다. 지용수 목사는 금, 토 저녁 8시30분, 토 새벽 5시30분, 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에 말씀을 전한다.

▲문의: (718)359-0116

'월드밀알찬양대축제'

월드밀알선교합창단(단장 이정진)이 주최하는 '월드밀알찬양대축제'가 '언더우드 선교사 서거 100주년 기념' 주제 아래 10월 16일(주) 저녁 8시 뉴욕 맨해튼 카네기홀에서 개최된다. 무료이며 입장권은 미리 받아야 한다.

▲문의: (917)727-9926, 334-7324, (718)709-6196



ARPC 한인목회자들을 위한 수양회에서 문석호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ARPC, 제2회 한인목회자들을 위한 수양회

협동개혁장로교회 (ARPC,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제2회 한인목회자들을 위한 수양회가 지난 9월 20일 오전 8시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수련회는 특히 ARPC 산하 북미주화장위원회(ONA, Outreach

of North America) 주최로 북미주 선교전략과 개혁 교회 사역에 관한 세미나 및 그룹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수양회에는 뉴욕지역 뿐 아니라 전 미주에서 참가하며 무료로 진행됐다. 뉴욕지역 목회자들은 타 교단 목회자들의 참석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원정 기자)



퀸즈성인대학 개강예배에서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퀸즈성인대학 개강예배...11월말 종강

퀸즈성인대학 개강예배가 지난 20일 퀸즈장로교회 지하 친교실에서 열렸다.

고국환 장로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허경화 장로 기도, 김성국 목사 말씀("배우고 확신하는 자", 딤후 3:14), 독주 김기호 장로, 축도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 후에는 새학기 학사 일정과 과목을 공지하고 교수 소개가 있는

후 각 반 등록시간을 가졌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성인대학은 오전 9시40분부터 전 학생이 예배 및 성경공부를 한 후 건강체조, 미술교실, 뜨게 교실, 스마트폰반, 수지침, 생활영어 등을 선택해 공부하게 된다. 수업 후에는 오찬이 제공된다.

성인대학은 11월 29일 종강한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정부회장선거 후보 마감

회장 김홍석 목사, 부회장 김전 목사 이만호 목사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 43회기 총회 시에 치러질 정부회장선거 및 감사 후보가 지난 23일 정오

에 마감됐다.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창섭 목사)는 26일 오전 선관

위 모임을 갖고 총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미비서류를 보완해 30일 오전 10시30분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했으며 당일 정오 최종 후보자들을 발표한다.

23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후보: 김홍석 목사(현 부회장, 뉴욕늘기쁜교회 담임) △부회

장 후보: 김전 목사(뉴욕대한국회 담임),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 △감사후보: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 담임).

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정직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약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금품이나 금전이 오갈 경우 후보 탈락을 받아들일겠다는 내용이다. 또 실령 총회에서 당선됐더라도 차후 밝혀질 경우 경질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서약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26일 뉴욕교협 선관위가 모임을 가진 후 기념촬영 했다.



글로벌여목연·뉴욕여목연 창립감사예배 및 회장 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빛을 비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글로벌여목연·뉴욕여목연 창립감사예배 및 회장 취임식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전희수 목사)와 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지난 22일 창립감사예배 및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준비위원장 전희수 목사는 "성령에 이끌림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다. 기도한지 3개월 만에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새 일을 열어 주시고 세상의 빛의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우리는 교회사에 나타난 여성들의 발자취를 알고 있다. 여성목회자연합회는 다양한 사역을 활용해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역 중심의 연합회로 발족했다. 어둠과 소외된 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는 표어처럼 이 말씀이 여성목회자연합회를 통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권금주 목사는 "아직도 총회(미주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이후 꿈꾸는 것 같다"며 "오늘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오늘 이 자리가 부족한 저에게 주께서 주시는 위로요 나타낸 저에게 주시는 채찍으로 알고 기도

기도 나명자 목사, 성경봉독 오명희 목사, 특송 뉴욕여목회 살렘찬양단, 말씀 방지각 목사("경건을 연습하라", 딤후4:6-9), 헌금특주 김수경 목사, 헌금기도 장만자 목사, 축도 황영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취임식은 박영주 목사 사회로 월드밀알중앙찬단의 축가, 전희수 목사의 인사의 말과 취임사, 권금주 목사 취임사에 이어 연합기쁨배가 전달됐다(글로벌여목회 회장 전희수 목사, 뉴욕여목회 회장 권금주 목사, 뉴저지여목회 회장 박정희 목사, 케네디여목회 회장 조상숙 목사).

이어진 권면은 이종명 뉴욕교협 회장, 축사 이의철 뉴저지교협회장 황현호 케네디교회장 증경회장, 김영환 뉴욕목사회 회장, 권민 송병기 뉴욕교협 증경회장, 광고 권금주 뉴욕회장, 폐회기도 오태환 뉴욕전도회 회장, 오찬기도 마바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와 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는 미주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장경혜 목사) 총회 이후 문제가 생겨 3개월간의 진통을 겪은 후 새로운 단계로 결성됐다.

동 연합회는 살렘찬양단원을 모집하며, 어머니 기도회(매월 첫째 화요일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 살렘중보기도회(매월 화요일-첫째 제외-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를 갖는다.

(유원정 기자)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추계부흥사경회에서 김은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회복과 재 헌신" 강사 김은수 목사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추계부흥사경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대 목사) 추계부흥사경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김은수 목사를 강사로 진행됐다.

"회복과 재 헌신"이라는 주제로 사흘간 말씀을 전한 김은수 목사는 전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 목회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글로벌리폼스신학대학원(Global Reformed Seminary) 원장이며 국제교회재활성화선교회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김은수 목사는 첫날 저녁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시42: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재 헌신이 이뤄진다"며 본문으로 인해 큰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도 낙망하며 불안해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 옛사람

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러나 해결책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뜨거운 감사와 평강이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글로벌 리더로 키우라" ...강사 유원식 회장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월례회 글로벌리더십세미나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 9월 월례회는 '글로벌 탤런트 & 리더십' 세미나로 진행됐다. 강사는 뉴욕을 방문한 한국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이 맡았다.

전희수 목사 사회로 박진하 목사 기도 후 시작된 세미나에서 유원식 회장은 "폐루와 콜롬비아 아동후원 사역에 주력하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에 감사한다"며 "지역적으로 이미 글로벌 선상에서 사는 분들에게 글로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민이 많다"고 말하며 "이민 2, 3세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로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 현장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강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광고를 통해 11월 오

병이여 원고 모집을 촉구하고 유상 열 목사의 폐회기도 및 오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빵과 복음'이라는 가치를 걸고 시작된 NGO 기아대책은 2015년 3월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유원식 회장은 지난 9월 22일과 23일 시카고에서 국제기아대책 첫 회장단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미국 게리 에드몬드 회장, 한국 유원식 회장,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전희수 목사, KAFHI 회장 김형균 목사 등이 참석해 지구촌의 기난이 종식될 때까지 비전을 갖고 연합을 통해 사역을 해나가자고 다짐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월례모임은 26일(수)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에서 갖는다.

(유원정 기자)



뉴욕지구장로연합회가 제43차 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지구장로연합회 제43차 기도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제43차 기도회가 9월 21일 오전 8시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이광모 장로 인도로, 반주 손옥아 권사, 기도 신수빈 장로, 말씀 허윤준 목사("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삼하5:10-12)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특별기도시간에는 신철승 장로가 "다민족선교단체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유경준 장로가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김해수 장로가 "본교회(뉴욕새생명장로교회)를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드렸다. 이어 송운섭 장로의 헌금특송과 박석지 장로의 헌금기도 후 황기복 장로의 광고, 허윤준 목사 축도로 마쳤다.

제2부 회의에서는 다민족선교대회 평가 및 결산보고를 가졌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다민족선교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주시고 후

원해주신 임원들과 회원들 그리고 16개의 교회와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한다"며 "특별히 다민족을 향한 2회에 걸친 노방전도를 했는데, 앞으로도 매월 조찬기도회 후에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연합회를 더욱 크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뉴욕장로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행사에 참여한다.

△10월 1일(토) 정오 코리안 퍼레이드(맨해튼 38가/6에브뉴) △10월 2일(주) 오후 5시 뉴욕농아인교회(담임 이철희 목사) 설립8주년 기념예배 △10월 17일(월)-18일(화) 산상기도회(강사 임병남 목사).

한편 뉴욕장로연합회는 △9월 22일 북한5차 핵실험 규탄(강사 서경덕 목사) △24일 이승만 박사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주최 "자랑스런 대한민국건국사 세미나"에 참여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크리스천의 영적 삶 다짐한 시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제3차 학습여행 성료

종교개혁 500주년(1517-2017) 기념 제3차 학습여행이 크리스천위클리(발행인 조명환 목사)주관으로 9월 12일부터 12박1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LA와 한국에서 참석한 33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제 3차 학습여행 팀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를 순회했다. 일행은 500년 전 종교개혁을 위해 헌신한 순례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새롭게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진정한 크리스천의 영적 삶을 다짐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13일 첫 도착지인 런던을 방문한 일행은 요한 웨슬리의 생가와 그가 회심했던 올더스게이트 거리, 런던 기념관내 회심기념비, 번힐필드를 방문하고 그곳에 연결된 웨슬리 모친 수잔나의 무덤, 존 번연의 무덤을 돌아 봤다. 이튿날 옥스퍼드로 향해 1532년 헨리 8세가 설립한 대학 겸 성당 크라이스트처치를 방문해 웨슬리 형제의 사역을 살핀 후 대영박물관을 돌아봤다.

이어 도로해협을 따라 도착한 곳은 파리 노트담 성당과 콩코드 광장, 개선문과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을 돌아본 후 스위스로 향했다. 제네바와 취리히를 방문한 일행은 쾰빈과 츠빙글리의 발자취를 밟고 이튿날 독일로 옮겨 그곳에서 3일을 머물며 하이델베르크, 보름스, 후랑크 후르트, 아이젠하크, 비텐베르크를 통해 마틴 루터의 개혁 사상에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바르트부르크 성

흔뻑 젖을 수 있었다.

마지막 도착지인 체코에서는 화형당한 안 후스의 사상과 그 사상을 따라 설립된 모라비아교회(체코 개신교)를 둘러보며 선진들의 개혁정신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이번 3차 학습여행은 매일 아침 기도도 시작했으며 종교개혁자 관련 강연도 준비돼 존 칼빈에 관하여 안정삼 박사, 조교수 목사의(정부는 핏교회), 요한 웨슬리/마틴루터에 관하여(황기호 목사/월서연합감리교회), 안 후스에 관하여(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 진행됐다.

한편 18일 주일예배는 알프스산맥 위기마운틴 정상에 위치한 kulm 호텔에서 조명환 목사 인도로 기도 이진세 장로, 말씀 황기호 목사가

말았다.

황 목사는 '지혜로운 청지기'(눅 16:1-15)의 제목으로 "중세교회는

(이성자 기자)

ANC온누리교회 새담임 김태형 목사 교인총회서 90.8% 지지로 최종확정

ANC 온누리교회가 부산 호산나교회로 청빙돼 떠난 유진소 목사 후임으로 김태형 목사를 최종 확정했다.

ANC 온누리교회는 25일 3부 예배 후 열린 교인총회에서 총 948명 중 찬성 864명(90.8%), 반대 84명(8.8%)로 김태형 목사를 담임목사로 최종 확정했다.

행정장모인 한규호 장로는 교인총회 결과에 대해 '리더십들과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일궈낸 귀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김태형 목사는 "투표 이전 3분의 2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당회에 전했다. 이번 90% 이상의 교인들의 지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더욱더 충성하겠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김태형 목사가 단독취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17년간 교회와 함께 했으며, 4년간 공동담임목사로 사역하는 과정에서 성품과 설교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유진소

1500년에 걸려 타락했지만 지금 교회는 500년 만에 돈과 권력과 명예로 타락해 버린 안타까움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개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현재 교회의 타락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주원인이다. 너무 많은 염려에 얽매어 세상을 구차하게 살지 말고 삶이 축복의 근원 되도록 자유하기 바란다. 세상의 것들에서 자유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는 크리스천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를 통해 드린 헌금은 크리스천위클리 후원금으로 전달됐으며 류용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다.

크리스천위클리는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순례하며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개혁할 것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제시해오고 있으며 500주년을 맞는 2017년에는 5월 스페인과 그리스, 9월 제 4차 종교개혁발상지 학습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목사 사임 후 7개월간 교회를 안정적으로 인도한 리더십으로 평가됐다.

김태형 목사는 11세에 미국으로 이민온 1.5세대 목회자로 탈봇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 풀러신학교에서 신학석사(Th.M)를 마쳤다. 1999년부터 ANC 온누리교회 EM과 교육부를 담당했으며, 캐나다 원주민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다. 2011년 차세대 담임으로 취임 유진소 목사와 공동담임 목사로 사역해왔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희망 순회 콘서트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최경열)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에서 수년간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장애 예술가들을 모집하여 국악협문화나눔예술단을 구성하고 9월 29일 LA 총영사관의 환영공연을 시작으로 LA 및 시카고, 멕시코에서 희망 콘서트를 개최한다.

▲문의: kukjanghyub@hanmail.net www.saca.or.kr

크리스천헤럴드/CHTV 창간 및 창립 기념 찬양제

크리스천헤럴드(회장 양준호) 창간 39주년 및 CHTV 창립 1주년 기념 찬양제가 10월 2일(주) 오후 5시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353-0777

여성사역자 세미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회와 CWMM(Center for Woman in Minister and Mission)이 공동주관하는 여성사역자세미나가 10월 3일(월) 오후 6시30분-8시50분까지 미주장신 채플실에서 개최된다. '여성사역자 진로와 역할'의 주제로 열리는 본 세미나를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문의: ptsastudent16@gmail.com

월드미션대학 'NGO와 선교' 공개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사)에서 지역사회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를 초청해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로 임진기 사무총장(WHM 재단설립추진단 사무총장, 10월 4일, 6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화, 목 강의내용 동일). 임진기 사무총장은 '센터처치'(저자 팀 켈러 목사)를 번역한 오종향 목사가 강사로 특별 추천했다. 회비 없음.

▲문의: (213)388-1000



한인가정상담소 제33회 연례기금모금 만찬행사에서 이진선 박사가 기조연설하고 있다

Together We Thrive... 이진선 초청

한인가정상담소 제33회 연례기금모금 만찬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9월 22일 제33회 연례 기금모금 만찬을 개최했다.

'투게더 위 스라이브(Together We Thrive)'라는 주제로 할리우드 에 있는 테글란 컴플렉스에서 열린 이날 기금모금 만찬에는 370여 명의 한인 및 주류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33년간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한인들에게 편안한 안식처와 따뜻한 위로가 돼주고 있다"며 "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며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 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조연설자로서는 16년 전 교 통사고로 화상의 아픔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최근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진선 박사가 초청됐다. 이진선 박사에는 "16년 전인 2000년 자동차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다. 회복되는 시간까지 고달픈 시간을 보냈다. 피부이식을 했지만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어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했다"며 "인생을 살면서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상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역할을 하며 KFAM이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앞으로 아픈 자들,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행복세미나가 10월과 11월에 열린다.

한인가정상담소 행복세미나 개최 10월 성교육, 11월 대인관계 세미나 실시

LA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한 한인가정상담소(KACC, 소장 김화자)에서는 행복한 대인관계를 지향하는 행복세미나를 매달 4주에 걸쳐 주최하고 있다.

10월에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자녀 성교육 세미나로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성"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과연 어떻게 자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11월에 열린 "너와 나를 위한 안전한 울타리"는 대인관계에서의 바운더리 즉, 경계선의 필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위 세미나들은 LA 지역뿐만 아니라 OC 지역에서도 열리고 있으며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한인 기독교 상담소는 LA지역(213-738-6930)과 OC지역(657-529-1133)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라크마 주최 '한국의 열' 한국 가곡의 밤 연주회가 한국문화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공연이 마친후 출연자들과 라크마 지휘자 윤임상 교수가 기념촬영하는 모습

라크마 주최 '한국의 열' 한국가곡의 밤 성황

라크마 주최 '한국의 열' 한국 가곡의 밤 연주회가 한국문화원 아트홀에서 9월 23일 오후 7시30분에 열렸다.

음악회는 소프라노 클라라김이 '연'과 '꽃구름 속에', 소르파노 양유진이 '하얀 약속'과 '동심초', 소프라노 김희우가 '아리리랑'과 '고풍의상', 소프라노 김미진이 '연꽃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와 '수선화', 메조소프라노 조지영이 '벚꽃 나무 아래'와 '봄송이', 테너 오유영이 '

그리운 실은 파도'와 '내 마음의 강물', 베이스바리톤 더글러스 오웬 맥도널드가 '목향'과 '명태'를 부르는 등 격조 높은 공연을 했으며 출연진들이 다함께 '보리밭'과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다.

이날 공연에서는 사회자 소프라노 김은혜 씨가 공연되는 곡들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 관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박준호 기자)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열린 새소식반 교사강습회에서 여병현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 시켜라"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교사강습회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를 9월 26일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본 협회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윤희 전도사와 함께 찬양활동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시작된 교사강습회는 여병현 목사가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여 목사는 "다음세대 사역이 안 되는 것은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다. 미주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60%가 넘어서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주일학교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여기고 있다면 반드시 부흥할 수 있다. 한국 거창 한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숫자가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강습회가 어린이 사역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전도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린아이들은 잃어버렸다 △어른들보다 순수한 좋은 성품들을 갖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전도의 효과는 매우 크다 △어릴 때 예수님을 믿으면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된다. 예를 들면 폴리갑(9세), 코리텐볼(5세), 조나단에드워드(7세), 아이작 왓츠(9

세), 메튜헨리(10세) △과승선교사의 75%가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어린이 전도는 한 영혼과 함께 그의 일생을 구원한다 △어린이는 봉사할 여생이 많다고 소개했다.

또한 여 목사는 "이스라엘 교육의 주제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지금의 교회에 해당되는 회당에서는 랍비,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었다. 또한 성경이 요구하는 교육의 주제는 가정, 교회, 그리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 말하며 "하지만 현대교회에서는 신앙교육을 교회의 전유물로 여기는듯하다. 한 주간을 시간으로 나누면 168시간인데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2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사강습회는 참석자들이 여 목사의 강의를 메모하며 경청하는 등 진지한 가운데 진행됐다. 어린이전도협회의 새소식반 교사강습회는 10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문의: (213)382-1544

(박준호 기자)



GBC미주복음방송 공개헌금을 위한 특별 기도성회에서 임덕순 GBC사장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GBC 공개헌금 위한 특별기도 성회

10월 1일, 방송선교기금 마련 공개헌금의 날

GBC미주복음방송(사장 임덕순 장로) 공개헌금을 위한 특별 기도성회가 9월 24일 오후 7시 GBC공개홀에서 열렸다.

GBC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현철 목사의 사회로 열린 성회는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담임)가 '만약 내가 1년만 더 살수 있다면'(약4:13-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GBC 중보기도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총만교회 담임)가 '미주복음방송의 시대적 사명 감당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이승준 목사(하나로커뮤니티교회 담임)가 '미주복음방송

의 방송선교기금 모금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성회는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미주복음방송은 오는 10월 1일 토요일 LA와 오크랜드의 10개 부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송선교 기금마련을 위한 공개헌금을 후원받는다. 각 교회와 성도들은 가까운 공개헌금 접수처를 찾아가 후원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714)484-1190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양대 장로교단 101회 정기총회 개최

예장합동, 새 총회장에 김선규 목사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총현교회(임시당회장 노태진 목사)에서 개회예배와 함께 제101회 총회를 개최했다.

박무용 총회장은 설교에서 “교단 내 갈등과 혼란이 있고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지만 총회에 임하기 전에 부족한 죄인으로서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며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함께 총회를 지어 가는 총대들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는 개회선언 직후 회원점명에서부터 진동을 겪었다. 당초 153개 노회에서 1614명의 총대가 참석할 예정이었던 총회는 143개 노회 1536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됐다.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가 총회결의 위반 및 해(害)총회 행위 등으로 처벌을 지시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노회에 대해 총대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총대 등록을 하지 못한 일부 노회원들이 총회장의 퇴장 요청에 항의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회 후 오후 7시 30분에 속회된 총회에선 ‘선거관리위원회 파행’이란 초유의 사태를 낳았던 목사부총회장 후보 등록과 관련해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백남선 선관위원장의 상황 보고에 이어 임후보자인 김영우(서전읍교회) 정용환(목포시온성교회) 목사의 후보 등록을 놓고 ‘후보를 등록 시키고 총대들의 선택을 받자’는 입장과 ‘선거 규정 상 두 후보 모두 결격 사유가 있어 사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맞붙었다. 결국 한 시간의 논쟁 끝에 총대들은 두 명의 후보자를 모두 탈락시키자는 안을 박수로 결의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단독으로 출마한 김선규(69·성현교회) 목사가 총대들의 기립박수 속에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외에 단독 후보에 오른 김성태

(장로부총회장) 장로, 서현수(서기) 김정설(회록서기) 장재덕(부회록서기) 목사, 양성수(회계) 서기영(부회계) 장로가 신임 임원으로 추대됐다.

둘째 날 회의를 갖고 신임 목사부총회장에 전계현(68·익산동산교회) 목사를 선출했다.

총회는 전날 후보자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부총회장 임후보자인 김영우 정용환 목사를 탈락시키고 후보를 새로 추천받았다. 이날 선거에선 호남중부지역 실행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한 전 목사와 나학수(광주거자교회) 목사가 경합해 757표를 얻은 전 목사가 223표 차이로 나 목사를 제쳤다. 전 목사는 “총회 안에 패배한 불신을 견어내고 질서와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예장합동은 이날 21명의 총회 상비부장 선출을 완료하고 300여개의 현의안을 상정했다. 예장합동은 30일까지 ‘선거법 개정’ ‘목사·장로 정년 연장안’ ‘이단 관련 총회 입장 재정립’ 등을 논의·처리할 예정이다.

예장통합, 장로교 최초父子 총회장 탄생

한국 장로교단 사상 처음으로 부자(父子) 총회장이 탄생했다. 이성희(서울 연동교회) 목사는 2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안산제일교회(고훈 목사)에서 열린 제101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에 선임됐다.

이 총회장 부친인 고 이상근 목사도 같은 교단에서 제59기 총회장을 지냈다. 이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017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다시 거룩한 교회로’의 당위성을 갖고 저부터 개혁하겠다”면서 “갈등의 후예들이 세운 개혁교회로서 루터에 머물지 않고 칼뱅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사회를 변화하며 성기

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교회에 유익을 주는 총회, 작은 한 사람의 아픔과 바람을 함께 가슴에 담고 가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심을 모은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2번 최기학(서울 상현교회) 목사가 749표를 얻어 699표를 얻은 기호 1번 정현교(정주강서교회) 목사를 50표 차이로 꺾고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단독 후보로 나선 장로 부총회장에는 손학중(서울 영서교회) 장로가 당선됐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롬1:17, 레19:2)를 주제로 개최된 올해 총회에서는 현재 비상근으로 임기가 1년인 총회장의 재임 방식

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각종 송사 등으로 교단 안팎의 구실수에 오르고 있는 총회 재판국의 실효성에 대한 격론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의 정원 축소 문제와 총회 상회비 감면 현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제100회기 총회 임원회가 최근 4개 이단에 대한 특별사면을 선포했다가 철회한 사안에 대해서도 총대들의 책임 추궁이 뒤따를 전망이다.

다음은 제101회기 예장통합 주요 임원 명단. 서기 신성호(전주노회), 부서기 김영결(포항남노회), 회록서기 정민량(대전노회) 목사, 회계 이용희(평양남노회), 부회계 김미수(제주노회) 장로.

교회 수 늘었지만 전체 교인은 감소세

가을 총회 교단별 교세 현황 살펴보니…

주요 장로교단들의 교회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교인수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교파 교단들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 차원에서 다음세대 신앙전수와 목회자수급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1일 장로교 주요 교단이 밝힌 교세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은 최근 4년간 교회수가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고 교인수는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합동은 교회수 1만 1593개(2013), 1만2078개(2014), 1만1700개(2015)로 나타났고, 교인수는 285만7065명(2013), 272만1427명(2014), 270만977명(2015)으로 감소했다.

예장합동 총회 관계자는 “교인은

감소하고 교회는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다 교회수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교인수 감소’ 현상이 목회자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목회자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목회’ ‘공간 개념을 벗어난 관계중심의 목회’ 등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장고신은 지난 12년간 교회수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교인수는 2012년부터 매년 감소해 3년간 2만1212명이 줄었다고 이번 총회에 보고됐다. 고신은 교회수가 1774개(2012), 1811개(2013), 1852개(2014), 1840개(2015)였으며, 교인수는 48만2488명(2012), 48만1032명(2013), 47만2717명(2014), 46만1476명(2015)으로 감소했다.

예장고신 구자우 사무총장은 “10여년 동안 교회학교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전도위원회를 전도국으로 격상하고 다음세대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합신은 교회수와 목회자 수는 해마다 증가한 반면, 교인수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했다. 이번 총회에 보고된 교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회수는 899개(2013), 905개(2014), 924개(2015)로 증가했으나 교인수는 큰 변화 없이 14만9969명(2013), 14만7256명(2014), 15만1516명(2015)으로 나타났다.

예장합신 관계자는 “교회의 70%가 30명 이하의 교회인 데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총회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원파 ‘언론 재갈 물리기’ 소송

국민일보 기사 중 이단전문가 언급 문제 삼아 손해배상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진교회)에 이어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도 국민일보를 상대로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원파는 최근 법무법인 ‘강’을 소송대리인으로 세우고 국민일보를 상대로 한 정보보호 및 1000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구원파가 문제를 삼은 기사는 올해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게재된 ‘하나님의교회, 미국서도 시한부종말론 주장 물리’(1월 11일자 25면)와 ‘기독교자유당 국회 입성 땀 사이비종교금지법 제정’(4월 13일자 30면)이다.

구원파는 하나님의교회 관련 기

사 중 “정부와 김·경은 ‘제2의 유병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진영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의 멘트를 트집 잡았다.

또 “기독교자유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사이비종교특별금지법을 제정해 유병언 구원파의 세력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정에 힘쓰겠다. 사이비종교특별금지법의 1차 대상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하나님의교회, 유병언 구원파 등 반사회적 교리를 갖고 있는 시한부종말론 집단이 될 것”이라는 기독교자유당 관계자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교단 총회 종합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유영식 목사)는 21일 정치·재정적으로 교단 내 갈등을 빚었던 문제를 대화합 차원에서 모두 덮기로 하고 제106차 정기총회를 ‘화목 총회’로 마무리했다. 총회 둘째날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장 배광호 목사)은 선교단체 인터콥에 대해서 당분간 참여금지기로 결정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총회 3일째 회의를 가진 기침은 이날 오전부터 총회의 재정 손실, 대전 침례신학대 이사회 파행 등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조사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설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의원들은 유영식 총회장, 조사위원, 각 조사 대상자들이 따로 모여 합의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조사 보고서를 모두

또 선교단체인 인터콥과 관련 해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에 의뢰해 1년간 연구보고를 하도록 하고 교수회의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예장고신 김해노회는 ‘인터콥의 신학과 선교사상의 문제에 대한 총회 결정 요청’을 상정한 바 있다.

22일 충남 천안 동남구 충절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속회한 제66회 총회에서 군중목사 지방자에게 조기 안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의안을 전날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군목 지방생은 신대원 재학 중 강도사와 목사 고시에 응시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총대는 “신학을 제

자는 ‘교단 내 세대와 지역에 따라 신앙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장합신(총회장 최칠용 목사)은 충남 천안 리솜스파캐슬에서 가진 제101회 총회 둘째날 회의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 소득세 조항’을 폐지하는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총회는 종교인 납세가 헌법 제20조가 정한 종교자유에 치명적 독소가 된다고 근거를 밝혔다.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두날개)’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며 경기노회 등 4개 노회가 현의한 건은 20일 밤 기각됐다. 합신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두날개와 교류급지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장합신은 22일 회의를 앞두고 가장 민감한 주제였던 이단 문제를 다뤘다. 이단사이비대책위

예장고신, 여성 ‘권도사’ 신설 부결, 선교단체 인터콥 당분간 참여금지

예장합신, 춘천 한마음교회 소속교단(기침)에 문의

폐기하고 이와 관련해 대의원권이 제한된 14명에 대해 전원 복권하기로 합의했다.

기침은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통합 찬성을 결의했다. 교단 차원에서 동성에 반대도 선언하기로 했다. 20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는 유관재(일산 성광교회)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당선됐다. 현 총무 조원희 목사는 총무 재선에 성공했다. 제1, 제2 부총회장은 총회 중에도 후보가 나오지 않아 선출되지 않았다.

예장고신은 이날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가진 제66회 총회 둘째날 회의에서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 지도자 명칭을 ‘권도사(勸導師)’라 칭하자는 신학위원회 보고를 부결했다. 고신은 지난해 여성목사 안수를 불허하기로 한 뒤 교단내 여성 지도자들을 위해 권도사 신설을 추진했다.

대로 공부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신학생에게 조기 안수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제9계명과 고신의 신앙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대다수 교단은 이미 군목 조기 안수를 허용하고 있다.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SFC)가 지난 연말 서울 지역 SFC 수련회에 유신진화론(창조 후 진화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한 강사를 초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SFC지도위원회가 대표간사의 역할 등에 대해 1년 동안 연구해 보고토록 했다. SFC는 총회 자료집에서 “강사에게 ‘과학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강의를 부탁하고, 유신 진화론에 대해 언급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강사 선정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이른바 ‘짧은 지구론’ 등을 기반으로 창조론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은 고신 교단의 분위기를 반영했다. 한 수도권 목회

한국교회내 성범죄 상담기관 전무

교개연, 성폭력 근절 위한 포럼서 신설 주장

한국교회 안에 성범죄 방지 및 처벌을 위한 권징조례와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문대(법률사무소)고 변호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열린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포럼’에서 한국교회 안에 성범죄 관련 신고·상담기관이 전무(全無)한 것과 노회와 총회 등 교단의 의결기구가 남성 위주로 구성된 것 등이 교회 내 성범죄 예방과 처벌의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성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선택해야 하며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에게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예희 교회개혁실천연대 국장은 해외교회의 사례를 들어 강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국장은 “미국장로교회(PCUSA)에서는 교회 관련 인사가 성적 비행을 연루됐을 경우 교단과 교회가 책임을 지고 조사비용 등을 지불하고 있다”며 “또 성적 비행에 관한 규칙을 각 노회가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연합감리교회(UMC)는 비밀

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적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단의 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인쇄용 전단지들을 배포하고 있다.

독일개신교회(EKD)는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 비행’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직원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를 위한 안내서’를 따로 마련했다. 캐나다연합교회(UCC)도 ‘성적 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 지침서’를 만들어 교역자들이 숙지토록 하고 있다.

김 국장은 “해외 교단에서,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모두 목회자의 책임으로 치부한다”며 “이는 목회자가 그 권위와 힘을 남용해 기독교윤리 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학가에 번지는 동성애 문화 막아야”

서울대기독교교수협·기독교총동문회,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

서울대학교기독교수협의회와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는 21일 서울대에서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베리타스포럼을 개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양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승규 변호사(전 법무부장관)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혐오·증오로 과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인데, 2007년부터 8차례나 법안 제정 시도가 있었다”면서 “차별금지법의 뿌리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거나 동성애자 결혼준례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게 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면서 “특히 공개된 장소의 전도는 물론 사이비 이단에 대한 비판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성애 행위가 인권임을 전제로 하고 차별금지법을 통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

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행동인 남성동성애자 간 성행위는 절대 인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자들이 정상인 취급을 받기 위해 입법 플랜에 따라 국가인권위법과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시민결합법 동성혼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자의 언론·출판 표현 비판 종교 양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도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서적이 되며, 성경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집단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 사례를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복음이 위축되고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서기 위해 바로고 용기 있는 목소리가 대학사회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부탁했다.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는 “

동성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극한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동성애, 수간까지 가는 것”이라며 “진보적 신학자들은 동성애 이슈가 우리 사회와 가정, 공동체의 공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바른 성경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처음 열린 베리타스포럼은 대학가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동성애 문화의 폐해와 부도덕한 성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인권 논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독교수협의회장인 홍종인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대학사회에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과 동성애자의 인권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색하고자 포럼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총동문회장인 최현림 경희대 의대 교수도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의 심정으로 대학에 퍼진 동성애 운동의 영향을 알고 캠퍼스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오는 28일 서울대 28동 101호에서 2차 포럼을 개최한다.

mission 선교의 창 (63)

미주 다민족 유학생 선교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현대는 미션 아웃도어스(Mission Outdoors) 시대이다.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해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역을 위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요지는 집 문만 열면 만날 수 있는 다민족들을 도외시하고 해외로 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에는 230개 국가 24,000종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오대양육대륙에서 온 차세대 지도자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그 나라로 간다 해도 만나기 어려운 자들이다. 실사만나도 쉽게 말 붙이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 대학가는 선교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선교지가 아닐 수 없다.

헌데 이 대학가가 어떠한가? 선교적으로 너무 썰렁하다. 미국에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있는데 몇몇 대학 선교단체 외에는 헌신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별로 없다. 오늘의 선교는 점차로 전, 후방이 없어져가고 있다. 지구촌이 하나의 선교지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는 선교 못지않게 오는 이를 맞이하는 선교도 중시 되어야 한다.

세계대학과 미국대학의 유학생 분포도

한국CCC 산하 GSM(해외선교

팀)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는 약 47,500개 대학이 있다. 여기 대학 인구는 세계인구 74억 중 2.7%에 해당하는 2억 정도이다. 이 많은 대학 중 80%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에는 4,700개 대학이 있다. 그들은 3억 2천만 미국인 중 6%에 해당하는 2천만 정도이다. 한국에는 400대학이 있다. 대학생은 5천만 인구 중 6%에 해당하는 300만이다. 그러면 해외에서 온 유학생의 실태는 어떠한가? 세계에는 450만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약 22%의 청년들이 미국대학에 있다. 2위는 영국으로서 그 절반이다.

리포트는 매년 국제교육주간(International Education Week)을 기념하여 미국의 IIE(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와 미국무부의 교육문화국(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이 협력하여 발표하는 국제교육에 대한 리포트이다. 2015년 11월 16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4/15학년도 미국대학에서 공부한 외국인 학생의 수는 974,926명이다. 이 중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304,040명이다. 이것은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30%가 된다. 2위는 인도로서 132,888명이다. 3위는 한국 유학생으로서 63,710명이다. 4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4만 5천명이다. 5위는 캐나다로서 2만 7천명이다. 이 유학생 숫자는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림잡아 전

체 110만 정도일 것이다.

미주에 유학생이 증가하는 이유

옛날 우리 속담에 “말은 제주도, 사람은 서울로”란 유행어가 있었다. 시골에서 난 청년이 서울의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출세의 등용문처럼 전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학은 일반화되어 누구나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미국대학에 약 110만의 다민족 유학생들이 와 있다.

저들은 각 나라와 민족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들이다.

본 사역은 다음 세대와 세계를 주께 귀속할 전략적 선교이다.

더욱이 국제화가 되면서 제주는도 변함없이만 서울의 의미는 미국으로 바뀌었다. 왜 사람들이 미국대학을 선호하는가? 현대판 로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다. 각 분야에 세계적인 교수가 있고 국제적으로 인맥을 쌓을 수 있다. 비단 학문뿐만 아니라 관점(Perspective)도 글로벌하게 열리게 된다.

IIE의 회장 Dr. Allan E. Goodman은 “21세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제적 경험으로 해외유학(Study Abroad)은 학생들이 현재의 국제 노동시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경험을 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다.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존하는 세계에 주요 이슈를 다루기 위한 다국적 협력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제 3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은 증가 일로에 있다.

미주대학 다민족 유학생 선교의 의의

왜 다민족 유학생을 중점적으로 선교해야 하는가? 성경에는 한 영혼이 천보다도 귀하다 했는데 이 대학가에는 전 세계에서 온 영재들이 110만 명이나 된다. 미국에 유학을 정도이면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일당 백, 천 이상을 할 자들이다. 그들 유학생들은 젊다. 정보와 지식이 있다. 전문성이 있다. 기동성이 있다. 열정이 있다. 목표의식이 강하다. 잠재력이 크다. 기성세대 비해 순수하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지도자들이다. 고국을 떠나 왔기에 외롭다.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많다. 대체로 시간에 쫓긴다. 학비와 생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많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다. 아예 기독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다. 따라서 저들을 선교한다는 것은 아마존 정글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역 못지 않는 가치가 있다.

다민족 유학생 선교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미주 기독교회가 이 중요한 선교현장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우리가 공존하는 세계에 주요 이슈를 다루기 위한 다국적 협력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제 3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은 증가 일로에 있다.

나름대로 자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기에 복음에 덜 수용적이라는 것이다. 넷째, 지역교회 성장의 시작이다. 그들은 교회에 와도 밤만 축내며 때 되면 학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기에 바람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이다. 다섯째, 교회의 한계성 시작이다. 교회 안에도 산적한 문제가 있다. 현대교회가 다민족 유학생까지 신경 쓸 정도로 시간, 재정, 인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현실이다.

다민족 유학생 사역에 대한 방안

먼저 미주 한인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바다에 떠

있는 유람선이나 운송선이 아니라 전투함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인이라는 자체 울타리를 깨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민족과 미국대학에 와 있는 청년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미주 땅에 한인 교회를 세우심은 우리끼리만 안위하며 경배하라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민족보다 선교적 사명과 열심과 힘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다민족 유학생 선교를 위해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오픈해 고독하고 배고픈 유학생들을 초청하며 그들의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끝으로 교회 안의 한인 대학생들을 훈련하여 그들로 친구 되게 하면 접촉점이 생긴다. 만일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 선교사나 선교기관과 연합하면 된다. 해마다 큰 대가를 지불하며 단기선교를 갈 힘이 되면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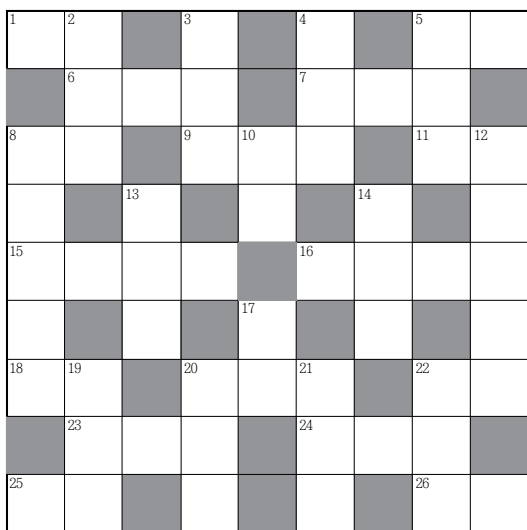
맺음 말

선교사의 모델적인 바울은 사역을 위해 역문화적 지형으로 동선했다. 즉,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와 여러 전략지를 거쳐 종국에는 로마로 갔다. 그는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택함으로 지구촌을 한 손에 움켜쥐게 된 것이다. 심장에서 박동된 피가 온 몸으로 퍼지듯 그의 선교적 지형 선택은 옳았다. 그가 만일 문화가 없는 오지로 갔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였다. 그는 아무데나 가지 않았고 전략 없이 일하지 않았다. 오늘 그가 살아 있다면 아마도 다민족 유학생을 통한 세계선교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다. 선교적으로 헌신도가 높은 미주한인교회가 주님나라와 열방을 위해 승부해볼만한 사역이다.

jrson007@hanmail.net

십자말 • Cross Word (142)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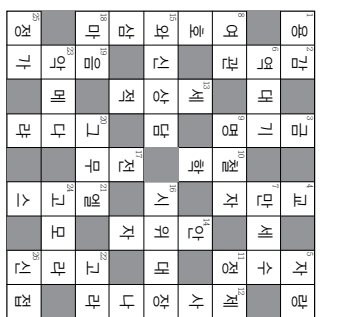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썩썩하고 겁이 없으며 기운참(민24:18).
2. 제 일이나 물건을 드러내서 높이 떠버림(약4:16).
3. 구약성경 역사서로서 열왕기서 다음에 있는 책.
4. 오랜 세월을 삶(단6:21).
5. 여행객을 묵게 하는 집. 대개 호텔보다 규모가 작다.
6. 재주 있고 사리에 밝은 사람(전9:11).
7. 바로 잡아 가지런히 함(에1:11).
8. 불편한 삶에서 자고, 쓴 쓸개를 맛본다는 뜻(고사성어).
9. 왕을 호위하던 군대의 장(렘39:9).
10. 지, 정, 의의 움직임. 맘(빌2:2).
11. 나홀님의 조상이 된 족장으로 그 자손에서 아람이 나왔다(창22:21).
12. 예서의 아들인데 오홀리바마의 소생이다(창36:16).
13. 매대국의 도성(스6:2).
14. 가나안 경내에 있는 여덟 도시 중의 하나. 유황불과 유관(창19:24).
15. 정해 놓은 값(레27:8).
16. 신령이 몸에 접함(레19:31).

<세로 푸는 열쇠>

1. 역사(役事)를 감독하는 관리(삼하20:24).
2. 금으로 만든 그릇(왕하24:13).
3. 건방지고 방자한 사람(사2:12).
4. 보라색의 투명한 6각 기둥의 결정체(출28:19).
5. 주(主)가 그곳에 거하시리라 뜻(겔48:35).
6. 자연, 인생, 지식에 관한 근본원리를 연구하는 학문(골2:8).
7.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약속의 나라(출19:6).
8. ○○○이요, 정육적이요, 마귀적이니...(약3:15).
9.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욘16:2).
10. 전문적으로 말아보는 사무(행6:4).
11. 음(音)을 조화, 결합시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예술가. 뮤지션.
12. 바스홀의 아들인데 예레미야를 옥에 넣은 방백중의 한 사람(렘38:1).
13. 선지자 나훔의 고향(나1:1).
14. 주께서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나 저희가 불신하는 고로 책망하셨다(마11:21).

십자말 정답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인/터/뷰

I교회 담임 이재근 목사

“할리우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성경에서 빌려왔다”

지난 8월 1일부터 5일까지 ITS 한국어 프로그램 여름집중강의 “기독교신앙과 영화읽기” 강의를 인도한 이재근 목사(북가주 팔로알토에 위치한 I교회 담임)를 만났다. 이재근 목사는 서울장신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뒤 목회학석사(M.Div.)와 조직신학 전공으로 신학석사(Th.M.) 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2005년 9월 미국으로 유학 왔다. 유학을 오기 전 10년간 교육전도사부터 풀타임 사역까지 10년간 사역을 한 바 있다.

“학부 때부터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좋은 학교에서 Ph.D까지 공부한 뒤 서울장신대학교로 돌아와 후학들을 위해 기여를 하고 싶었거든요.”

경기도 광주 시에 위치한 서울 장신대학교 90학번인 이재근 목사는 신학을 하게 된 계기는 교회에서 학생부활동 등이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 집안이 4대째 장로교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원래는 무역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학생회 활동부터 봉사를 하다 보니 신학을 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1년 목사안수를 받고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호르면서 정말 Ph.D를 해야 할까? 보스턴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목사가 영화공부... 성경 역시 당시 문화적 상황 차용해서 쓰여져
실리콘 벨리 지역서 대중문화, 아트미디어 관련 사역 비전 가져

GTU(Graduate Theological Union)에 입학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상통합측 목회자가 유학길에 오를 때는 프린스턴신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GTU로 진학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입학하기를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학지원서를 낼 때 학업계획서를 내야 했어요. GTU를 가게 된 것은 가장 먼저 입학허가가 난 것도 있지만 장신에서 Th.M 논문을 성령론에 대해서 썼던 것도 한 몫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9개 교단이 GTU와 관계를 하고 있기에 폭넓은 신학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기도 하고요.”

현재 보스턴대학교에서 문화전도학을 전공하며 Ph.D.과정 중에 있는 이 목사는 한국 신학계에서 생소한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GTU에서 시네마 수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대 시절에는 빨리 Ph.D까지 해서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제 기질에 잘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GTU에서 시네마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든 생각은 ‘이걸 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GTU를 졸업하고 보스턴대학교 박사과정(Ph.D)에 입학한 후 영화분야 공부를 할 때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신학적인 기반은 서울 장신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했던 것이 영화에 대한 신학적인 구조를 잡아주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영화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많은 격려를 받았던 것이 힘이 됐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루이스램보 박사가 제가 영화관련 공부를 한다고 하니깐 ‘나 자신이 시네마 수업을 하고 있지만 박사를 기를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분야는 신학계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셨고 박사과정에 입학할 때도 추천서를 써주시기도 했어요.”

KBS 통신원으로도 활동했던 이 목사는 KBS PD가 이쪽 분야를 공부한다는 말에 학위를 마치고 한 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아마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는 한국 신학계에서 미개척분야이기 때문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보스턴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영화관련 강의를 교회나 학교에서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으로 반기독교적인 영화와 기독교적인 영화라는 이분법적인 것을 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할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이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마다 생각하게 된 것은 기독교적인 영화가 무엇일까? 또 반기독교적인 영화는 무엇일까?입니다. 보편적 가치에서 선한 가치가 충분한 기독교적 신앙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실질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할리우드에서 성경이야기를 왜곡했

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성경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내용 역시 당시 문화적 상황의 것을 차용해서 쓰여졌듯이요. 그런걸 보면 순수한 크리스천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라는 분야로 박사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개척자이기 때에 맞게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다. 즉 신학계에서는 생소한 분야이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될 때라는 것이다.

“어떠한 분야든 첫 번째로 도전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려움일거예요. 저 역시 그렇거든요. 신학적인 부분에서 영화와 대중문화를 다룬 Ph.D 논문이 전무하다시피해요.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제가 처음이다 보니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불분명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방향을 잡아주고, 저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분이 계시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재근 목사와 같은 영화와 대중문화 분야에 뛰어드는 후배 신학도들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영화 쪽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스턴대학교에서 1년간 수업시간에 크리터시즘에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나간 적이 많거든요. 이러한 경험을 비춰볼 때 일찍 영화관을 경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배동 성민교회, 예능교회, 동부제일교회에서 10년간 교육전도사에서부터 찬양사역과 전임교구장사역까지 경험한 이재근 목사는 현재 아이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실리콘 벨리 지역에서 대중문화, 아트미디어 등을 통한 사역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동양선교회 원로 임동선 목사 소천

미주 한인교회 신앙의 지도자였던 동양선교회 임동선 원로목사가 지난 24일 오후 9시 6분경 9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1923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난 임 목사는 서울신학대와 숭실대 철학과에서 수학하고, 1948년 서울 아현성결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공군대령 초대 군종감으로 사역했다.

1970년 LA 한인사회 대표적 이민교회인 동양선교회를 설립하고, 월드미션대학교(WMU),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를 창립해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자신의 저서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의 제목처럼 세계 100개국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까지 선교에 매진했던 임 목사는, 지난 8월말부터 열흘간 남미 4개국 단기선교를 다녀오는 등 마지막까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유가족으로는 2남(임승광 집사, 임승현 변호사)2녀(큰딸과 둘째딸 임승향 변호사)가 있다. 장례위원으로는 동양선교회,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월드미션대학교 임원진이 맡았으며, 동양선교회 박형은 담임목사가 장례위원장직을 맡았다.

고 임동선 동양선교회 원로목사의 전국환송예배는 10월 1일(토) 오전 10시, 고인이 평생을 바쳤던 사역의 현장인 동양선교회 본당에서 교회장으로 엄수되며, 장지는 할리웃힐스 포리스트론이다.

(정리: 박준호 기자)

책 소개

“해외기독교문학” 제 6집

해외기독교문학협회 출판

해외기독교문학협회(회장 이길홍 목사)가 지난여름 제 6집을 발행했다. 회장 이길홍 목사는 “인간 역사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이민자”라며, “보이는 세계만 추구하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이민생활은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이민자의 길로 끌어낸 것은 하나님 특별한 섭리이며 여기에 해외기독교문학의 정체성이 있다”고 발간사에서 밝혔다.



이민자들의 삶, 기독교 문학으로 표현

또 명지대학교 명예교수인 홍문표 목사가 축사(“감성에서 이성으로, 이성에서 영성으로”)를 썼다.

책은 김해중 목사의 신년시(“새해의 창”), 초대시로는 곽상희(유목민 외 2편), 김규동(복에서 온 어머니 편지), 최선호의 평론(“송몽규와 윤동주의 항일투쟁”), 이철수의 시와 산문(“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를 실었다.

시 부문은 김요현, 박유남 등 11명이 19편의 시를, 수필은 곽상희, 김정국, 이종명 등 9명이 14편을, 시와 그림 신동인, 소설은 김길홍(“높은 도둑도양이”와 소년 외 1편), 이계선(이민실화소설 “뉴욕시장 단킨스를 끌어내려라”).

신인상 등단 작품으로 △시 부문에는 최광진, 황동익, 장현숙, 조앤리 △수필에는 이성철 손영구 한재홍의 작품을 실었다. 또 김해중의 간증회고록(“나의 에벤에셀 하나님”), 조의호의 소시집을 실었다.

총 321페이지, 창조문화사 인쇄. 책구입 문의는 (704)770-1341(김길홍 회장), (646)596-2492(김요현 총무)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제35회 HYM 청년연합집회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포스터와 기사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and perform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Acts 4: 28-31



강사 | 김선교 선교사

현) 다윗의 열쇠 대표
2005~2013년 순회선교단 사역자
<저서> 믿음은 분투다

MORE INFO

714-393-5135 (Douglas Kim 선교사)
www.hym.cc | hym21c@hotmail.com

Since 1999
HYM
HYM 청년연합회



2016.10.8-9

SAT-SUN 7PM

세리토스 선교교회

Cerritos Mission Church
12413 195th St, Cerritos, CA 90703

모시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금번 저희 교회에서 35년간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눈물과 기도로 섬기신 이용걸 목사님의 은퇴와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기대하며
 백운영 목사님을 담임목사님으로 모시는 위임예배를 갖고자 초청하오니 부디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장로교회 당회원 및 교우 일동 드림

- 일시: **주후2016년 10월 16일(주일) 오후5시**
- 장소: **영생장로교회**
- 주소: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 전화: **215-542-0288**



이용걸 목사



백운영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영생장로교회
 Korean Young sang Presbyterian Church

창립 35주년 기념 음악회
 Haydn The Creation **천지창조**

영생장로교회가 창립된 지 올해로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로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준비했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이민생활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준비한 이 귀한 기념음악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님들과 지역 교민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영생장로교회 이용걸 목사 및 교우 일동

2016년 10월 9일(주일) 6pm

영생장로교회 본당

706 Witmer Road Horsham PA 19044

영생장로교회 연합 찬양대

Symphony In C 교향악단

지휘 이창호

